朝鮮日報
夕刊
二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呼吸器病專門
人工氣胸等新式治療法
李喜徹內科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電車停留場北側

敵重要據點東朱宅占領
羅店、劉家行連絡完成
石井部隊、顧家宅要衝을占據

【羅店鎭一日同盟特派員發】永津部隊는 一日午後八時頃前面의 敵主力部隊를 郭巷橋크리크 交叉點에모러너허 ○砲機關銃의 集中射擊을與하고 繼續前進하야 正午頃 마침내 敵의重要據點東朱宅(羅店鎭、劉家行으로부터 各各三粁) 地點을 占據하였다. 東朱宅은 羅店鎭 劉家行을 連結한 自動車路의 中央에잇는 重要地點으로 敵은 이 據點을 빼앗기지안흐려고 必死的防戰을하엿스나 効果업시 多數한 武器와 死體를 遺棄하고 西方으로 潰走하엿다 東朱宅의 占領에 依하야 羅店鎭 劉家行道路에잇는 我前線의 連絡完成은 目睫間에 切迫되여 戰局의 飛躍的發展이 期待되게되엿다

【楊行鎭二日發同盟】上海街道의 要害劉家行을 突破當한 敵은 最後의陣地로밋는 顧家宅에 陣地를지고 我石井部隊의 猛攻에 對해 昨夜來頑强히抵抗하야 激戰을 繼續하고 잇섯는데 今朝七時半 我軍은 顧家宅의 要衝을 占據하엿다

崇德女學校占據코 三義里敵을壓迫!
我包圍攻擊에敵漸次後退

【上海二日發同盟至急報】二日午前十時 宮崎部隊 脇坂部隊는 白保羅路의 崇德女學校를 占據하엿다

【上海二日發同盟】高橋部隊는 脇坂部隊와 協力하야 今早朝 啓秀女子中學校東方建物을 占領하고 今井部隊는 公義聯堂을 堅持하고 右翼으로부터 三義里의 敵을 抑壓하고 佐野部隊의 一部及 土肥部隊는 廣東街로부터 上海印刷所의 敵을 包圍하고잇다

【上海二日發同盟】敵은 崇德女學校、三義里、上海印刷所를 連絡하는 線을 第一線으로하고 附近民家에 堅固한 土囊陣地及 토치카가튼 콩크리트陣地를 構築하야 我軍에 決死的抵抗을 繼續하고잇는데 我方의 的確한 砲擊이 奏効되여 바야흐로 淞滬鐵道에의 距離는 百米餘로되엿다

【上海二日發同盟】右翼의 堅陣啓秀女學校를 奪取當한敵은 崇德女學校를 左翼에 三義里를 中央에 上海印刷所를 右翼으로하고 窮鼠齧猫의 勢로써 頑强히 抵抗하고잇섯는데 我陸戰隊砲隊의 包圍攻擊에 견디지못하고 今朝來步一步後退하기 始作하엿다

淞滬鐵道確保在邇

【上海二日發同盟】我陸戰隊閘北攻擊第四日의 今日은 昨日에比하여 더욱 激烈한 戰鬪가 全面에 亘해 展開되엿는데 敵을鐵道線路에 모러너허 只今하밟자어면 所定確保地點인 淞滬鐵道線路의 線까지 進出하려하고잇다 我軍의 士氣는 더욱 軒昂하야 敵陣占據의 快報는 繼續的으로 齎來되고잇다

平漢戰線 (上)猛戰中의 我軍保定前線 (下)軍犬도我勇士도 渡河하는保定方面

各政府系銀行 本店南京移轉

【上海一日發同盟】信憑할 情報에依하면 上海에 本店을가진 各政府系銀行은 一日急遽히 本店을 南京으로 移轉하고 首腦部 여다

全部도 南京으로 移轉하게되는것 定한 模樣이다 이는 最近支那의 執拗한 活動으로 上海의 情勢가 顯著히 表面化하게되엿기때문이데 一方戰局의 全面的進展에 依하야 國民政府의 財政은 困難하게되여 今後各種의 非常手段을 取하게될 必要에 切迫되여 政府와 銀行이 緊密한 聯絡을 保持하기爲함이라고觀測된다

孔祥熙歸國

【東京電話同盟】압서國民政府의 經濟使節로 歐米行脚外交를하고잇는國民政府財政部長孔祥熙는最近 消息이 斷絕되고잇섯는데 三十日의 伯林紙에依하면 코-떠 太利斯號로리야빗드 歸國途上에 잇는데 同船은 十月十五日 香港着 十七日上海에入港할豫定이라한다

天羽公使 英代表와會談

【주네브一日發同盟】瑞西駐箚帝國公使 天羽英二氏는 一日午後日支問題小委員會 第一回會合後英國代表 크란본卿과 會見하고여러가지 懇談을 遂하엿다 席上크란본卿은『大勢의 赴하는바 文字의 遊戲만으로서는 지나갈수업다』고말하엿다고 傳聞한다 그러나 이러케 말은하엿지만 實際上果然 무엇을 行할가는 問題어나 爲先 對支技術委員會에서 五十萬瑞西法을 周旋하야 支那의 衛生援助에 出馬할 模樣이다

南總督 咸北視察

南總督은 近藤秘書官 田中遞信局長等을 帶同하고 來四日午後 京城驛發列車로 咸北道의 視察에 就하기로決定되엿는데 日程은 往復一週間豫定이다

北支와朝鮮關係 連絡事務擴充

今次事變으로 北支의 朝鮮關係事務는 激增하고잇는데 北支에 在留하는 朝鮮人의 保護指導에 對하야 外務當局과 協力하야 萬全을 期하게되여 目下北支現地에出張中인 外務部事務官 宮田眞雄氏를 外務省東亞局第二課勤務로하는 同時에 天津總領事館 事務를 總督府囑託으로 十日附로써 各其發令되엿스니 今後北支方面의 對朝鮮關係事項은 一層活氣를 뭇하게될것이라고期待된다

泥溝附近 軍用貨物列車爆擊

【旅順二日發同盟】旅順要港部午前十時發表 昨一日第○艦隊航空部隊는 泥溝(徐州北方台兒莊의北西方)附近에서 軍用貨物列車를 爆擊하야 擱座破壞시킨外 兵營을爆擊하얏다 我方에는損害는업다

敵機三次來襲!
我艦隊猛擊으로遁走

【上海一日發同盟】我航空部隊에 制壓되여 最後의 發惡까지하고 잇는 敵空軍飛行機는 一日午後十時四十分 同十一時의 二回에 亘하야 上海方面에 來襲하엿스나 我江上艦隊의 猛擊에 遭遇되여 虹口上空에도 達하지못하고 아무하는것업시 逃去하여버렷다

【上海二日發同盟】今曉零時五十五分敵機는 三次來襲하엿는데今日은 虹口上空에出現하야 東部我陸戰隊附近을 目標하고 爆彈을 投下하엿는데 我江上艦隊는 全砲門을開하고 猛擊을 加하야 어둠을退却하엿다

海軍航空隊의戰果

【上海二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二日午前九時發表 我海軍航空部隊는 昨日陸軍의 戰鬪에協力하야 嘉定 劉家行 大場鎭 江灣方面의 敵陣地를 爆擊한外 左의爆破를 行하엿다

一、江陰方面에서는 寧海型巡洋艦을 擊沈하고 永綏型軍艦을大破全計하엿다

一、浙贛鐵道電信、上海南方鐵橋를 爆破하엿다

一、廣東方面에서는 天河飛行場을 爆破하고 黃浦에서는 砲艦一隻을 擊沈하고 巡洋艦一隻을 大破시켯다

一、新街停車場及 倉庫를 爆破하엿다

一、南昌飛行場을 爆破하엿다

장크擊沈說에對한 帝國大使館反駁聲明

【倫敦一日發同盟】日本潛水艦이 香港前海에서 支那장크를擊沈하엿다는 風說이 只今아직英國內一般에 傳播되어잇슴에 鑑하야 倫敦帝國大使館은 一日午前如斯한 事實은 絕對로업고 右는 全然 無根한 風說에 不過하다는 콤무니케를 發表하엿다 콤무니케의 要旨는 如左하다 帝國海軍의 潛水艦은 全部日本의 本土近海上에잇고 또 潛水艦의 艦長은 商船과 漁船을 絕對로 攻擊치안토록命令을밧고잇다 따러서 帝國潛水艦이 香港前海에서 支那장크를 擊沈하엿다는 報道는 全然虛報의捏造이다

辭令

(九月三十日附發令)
(外務部參與官兼總督府事務官) 宮田 眞雄
敍任外務事務官(四等)
(十月一日附發令)
總督府警部京畿道警察部 岡□松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北釜山警察署長
總督府平安南道警部 武藤 治助
任總督府道警視(七等)
命平壤警察署警務課長
遞信書記官 福田 敏之
任總督府遞信事務官(四等)
命遞信局海事課長
任總督府編修官(五等)
命學務局勤務 中村 榮孝
(農林局)總督府技手 池上喜十雄
任朝鮮產業技師(七等待遇)
補黃海道產業技師

敵의裝甲列車를 我航空部隊爆擊

【天津一日發同盟】一日午後 津浦線德州를爆擊한 我陸軍航空部隊는 午後三時半 再次德州上空에 나타나 德州近郊에 集結中인 敵裝甲列車及 德州後方地區에 集結하고잇는 敵陣地를 爆擊하고 飛行하엿다 我飛行部隊의偵察報告에依하야 我地上部隊는 德州北方約一里地點에 肉迫하야 敵의裝甲列車를 對峙하야 이를南方으로 壓迫하고잇다

英紙의逆宣傳에 日本全體蹶起要望

【倫敦一日發同盟】今回的敗退에 窮한 支那側의 데마宣傳은 마치 蔣介石夫人 宋美齡은 連日勞働黨機關紙 데일리·헤랄드紙에 虛構의記事를揭載하는 外 倫敦駐箚支那大使館은 每日 日本軍을中傷하는記事를發表하야 英國國民의 反日氣勢를煽動하는等 感情的인 英國國民의 憤慨를어드려고 必死的努力을하고잇다 따러서日本의反駁이 至極하게되엿는데 軍의 非戰鬪員殺戮、潛水艦의漁船擊沈等을 아직도 말하고잇는狀態이다 此時를當하야 日本側은 有力한 新聞通信員이나오 政府當局만이아니라 支那側의 데마를反駁하기爲하야 日本全體의 大大的『칸페』을어르키면相當한 効果를 어들수잇슬것이라고보다 또南京、廣東等에서의 我空軍의 支那非戰鬪員에對한殺戮이 行하고잇다는等 데마가盛히 流行되여 一日의 타임스紙는 廣東北部의 西關에 잇는 學校民家를破壞하고 非戰鬪員二百名의 死傷者를내엿다고 報道하고잇는狀態이다

諮問小委員會 決議案審議未了

【주네브一日發同盟】聯盟의日支問題小委員會는 一日支那代表提案의 第二次反日決議案을 審議未了한대로 散會하엿는데 會議에서의 蘇支提携는 마치내 露骨化하야 蘇聯代表리트비노프는 宛然支那代表와 가튼行動하고잇다고 報道한다 卽第二次對日決議案의 卽時實施、反日色彩濃厚한 新西蘭代表를 小委員會에 加하는것도 모도 리트비노프의 提案에基한것이다 그런데 一日午後發表한 小委員會國은 濠洲、白耳義、英國、支那、에콰도르、佛國、新西蘭、波蘭、瑞典、蘇聯、라트비아外에 새로和蘭을加하야 合計十二國으로되엿다

英紙反日報道 獨紙强硬히反駁

【伯林一日發同盟】獨逸政府側에達한情報에依하면 最近廣東爆擊以來 英國政府의態度는 硬化되야 이미高射砲飛行機等의 輸出에着手하엿다고傳하는데 獨逸政府는 英國이또西班牙政府軍을支持하던境遇와가티 蘇聯과共同戰線에 선것이라고 斷案하고 자못 憤慨하고잇다고한다 그리고 英國의處置가 英紙의計畫的反日反獨『데마』에 誘導되고 그우에 또『데마』가 巧妙하게揷入되고잇는事實에 鑑하야 一日附獨逸新聞紙는 一齊히 如斯한『데마』報道反駁의 强硬記事를揭載하엿다

後援聯盟慰問使 今日北支向發

北支第一線에서 奮鬪하는 ○○部隊將兵에 送할 後援聯盟慰問使 柳井幹事以下 一行七名(平南의 參加는 途中平壤으로부터 參加)은 今二日午後三時五十分京城驛發『노조미』로 一路前線에 向하야 出發하엿다 一行은모두軍裝으로 半島民衆의 赤誠의 結晶인 慰問品은 임의 現地로 發送하엿스나 此等慰問品의 目錄과 慰問金一萬圓을 携行하고○○部隊長에게 直接贈呈할것인데 모다使命의 重大함에 一層緊張하야 北行하엿다

反日演說承諾者에 吉田大使가警告!

【倫敦一日發同盟】倫敦駐箚帝國大使吉田茂氏는 一日 칸타베리大僧正에 書翰을送呈하야 現在英國國內의 反日運動은 大部分 支那의逆宣傳과 無根誇張에基因한것이라는 事實을 指摘하야 칸타베리大僧正에 何等의 確證도업시 來五日 알버트·홀에서 開催되는 反日大會의司會者가 되엿슴에 對하야 抗議的注意를喚起하는 同時에 吉田大使는 크립스·크로미콘(自由黨系) 其他 右反日大會演說承諾者에 對하야 同樣의 警告를 發하엿다

敵機投下燒夷彈 敵地浦東에落下

【上海二日發同盟】昨一日午後十一時부터 三回에亘하야 敵飛行機의夜襲이 잇섯스나 모두我防空砲火에 擊退되엿는데 敵은前後三彈을投下하엿다 이는 모두燒夷彈으로 黃浦江岸으로부터 三十米의 東方敵地浦東에 落下爆發하고 租界에는被害는업섯다

◇人事·集會◇

▲高尾甚助氏(總督府事務課長)平北出張中二日午後二時半京城驛着歸任

▲曹秉相氏(京畿道會議員)北支方面皇軍慰問次二日午後三時五十分京城驛出發豫定

人面錄

賣渡도아니하고 引繼도안는다하면서 受難後援會長에게 그事實을通告한 誠意는 어데잇섯던고. ◇ 來年三月까지에 廢校를한다고하며, 여것은 米國의外國傳道局에서 正式通知가오것어가. ◇ 平壤人士가 期於코 三校를 살리겟다는 熱誠만잇다하면 方法이업슬것도아니엿음. ◇ 더욱이 當局이 理由업는 廢校申請은 바들수업다고하는것을보면 機關만이 도달할道理가 엇슬록도하엿음. ◇ 要컨대 問題는 宣敎會의 態度如何에 볼지난일이오, ◇ 朝鮮人、平壤人의손으로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決定할時機가왓다할것●

地上部隊進擊에呼應
德州를猛爆擊
桑園敗敵을猛追擊中

【天津一日發同盟】我軍의 德州進擊과함께 空軍도 出動하야 一日午後 我○○部隊는 德州에 爆擊을 加하얏는데 爆彈은 機關車에 一個 列車에 大個 貨車에 十個가 命中되여 敵의 退却準備中의 三個列車를 全部 散散이 破壞하야버렷다

【天津一日發同盟】津浦線進擊을 攻略한 我急追部隊의 前進과 呼應하야 一日 午前十時 ○○根據地를 飛出한 我空軍荒鷲部隊는 編隊로써 德州上空에 飛來하야 때마츰 德州驛에 停車中인 軍用列車 三十輛을 完全히 爆破하고 다시 機首를 西方에 轉하야 德州近郊의 湖水에떠 敵軍用船 四、五十隻에 猛烈한 爆擊을 加하야 全部 어를 擊沈하얏다 一方 我急追部隊는 正午 由東方을 넘어 桑園으로부터 德州에 潰走中인 殘敵을 急追하야 猛進擊을 續行中이다

津浦線敵必死抵抗 目下大激戰展開中

【天津一日發同盟】空軍의適切한 協力援護下에 一日午後 滄州以南 第一의要地 德州城外四粁의 地點에到着한 我○○部隊는 午後十時現在 各隊緊密한 連絡을保持하고 津浦線의 西側으로부터 대 敵의最後的防禦線인 砲火에 對하야 必死的抵抗을하고잇서 目下大激戰을 展開하고잇다

隆路溝敵을殲滅

【天津二日發同盟】○○軍○○部隊는 南口、八達嶺의 交戰 或은 太原의 支那軍根據地 逐擊等에 活躍하야 殊勳을 세웟는데 今回에는 또 內長城線 隆路溝의 攻擊에 地上部隊의 擁護爲하야 出動하야 支那軍이 不落의 要害라하고 自負하고잇는 鐵角山의 陣地를 겨우 數時間으로 爆破하고 三十日에는 主力部隊를 推進시켜 그一部로써 敵編隊飛中에 爆擊及 까솔린給油를 行하고 그一隊는 渾源으로부터 進擊한 ○○部隊에 挾擊되여 陰路溝로부터 德州五台山方面에遁走하는 支那兵四萬의 集團部隊를 發見하고 爆擊시켜 爲하야 午後六時二十五分 太原根據地를 連發하고 ○○軍根據地를 出動하야 일직이 世界空軍戰史에서 그例를 보지못한 敵前空軍根據地의 推進을 決行하야 豪膽하게도 敵의 腹中으로 大爆擊에 日沒 午後七時頃까지 約六時間에 亘하야 十數回의猛烈한 爆擊과 對地射擊을 加하여 敵部隊를 殲滅시키고 完全히 그目的을 達하고 前進陣地에 推進한 根據地를 撤退하야 午後八時○○의 空軍根據地로 歸還하엿다

荻涇크리크對岸 頑敵을攻擊中

【楊家鎭二日發同盟】顧家宅을占據한石井部隊는 더욱進擊을繼續하야 幅二十米의 荻涇크리크對岸의 토치카陣地에依據한 頑敵을 攻擊中이다

不再錄號外發行

二日朝本社는午前大의 不再錄號外를 發行하얏슴니다

邦人漁船도케이丸 和蘭驅逐艦에被擊
船員四名이死傷說

【紐育一日發同盟】一日하스트系 新聞이 海牙로부터의 報道하는바에 依하면 日本漁船 도케이丸(德海丸)은 蘭領印度의 海上에서 和蘭驅逐艦의 發砲로 船員中死者 二名 負傷者二名을 내엿다한다 和蘭驅逐艦 發砲의 理由는 同艦이 該日本漁船에 對해 停船을命하엿슴에 不拘하고 命令을 無視하고 逃走하려하엿슴으로 發砲하엿다고 傳한다

天下의名機出現!
四大製品 廉價販賣

藤井式自働送込脫穀機

茶谷式忠臣號稻扱機

型錄贈呈
◎特約店大募集
京城驛前
株式會社 サンエス商會
出張所 大邱、平壤、奉天

十一月十日中心 國民精神總動員

詔書渙發日을前後

총독부에서는 견인지구(堅忍持久)와 시간(時艱)을 이어나가는 조선민중의 각오를 일층강화하기위하야 오는 십일월십일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詔書)를 내린 기념일을 중심으로 국민정신작흥의 주간을 당하야 국민정신총동원의 일대운동을 전개하기로하야 이일 학무국에서 제일회관계관 타합회를열고 벌서 그준비에 착수하엿다 그리하야 금번은 례년의 행사에비하야 시국의 중대성을 반영식혀 거국일치적으로 전조선이 천삼백만민중의 일대정신운동을전개하기로 되엿다

統計功績者表彰

총독부문서과안에잇는 조선통계협회(朝鮮統計協會)에서는 시월일일 동협회창립기념일에 뎨하야 제이회통계공적자(統計功績者)와 통계우량읍면(統計優良邑面)의 표창을 행한결과표창된자는 다음의륙명과칠면이라한다

◇統計功績者

京畿龍仁郡遠三面書記 尹英燮
忠北沃川郡安南面長 閔丙友
忠南扶餘郡恩山面書記 川口新造
全南順天郡順天邑書記 朴漢郁
慶南統營郡沙等面書記 李性基
平北雲山郡委延面書記 崔在憲

◇統計優良邑面

全羅北道南原郡雲峰面
慶尙北道榮州郡安定面
黃海道殷栗郡一道面
平安南道陽德郡大倫面
江原道平康郡木田面
咸鏡南道利原郡利原面
咸鏡北道城津郡鶴西面

軍聯慰問使

今二日發程

八名이北支戰線으로

총독부안에잇는 조선군사후원련맹(朝鮮軍事後援聯盟)각도군사후원련맹에서 대표자를 북지(北支)전선에 파견하야 황군을 위문케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일행은 전부 팔명으로 지난구월하순경에 출발하랴하얏스나 그동안 현지사정에 여러가지 판게가잇서서날자를미루어오다가 이일오후삼시오십분경성역발렬차로 일로천진(天津)에 향하야 전선각지황군을 위문할터인데 일행의 성명은 다음과갓다

◇慰問使氏名

▲安倍小將▲柳生總督府社會課長▲青柳(京城)▲村尾伊勢松(忠南)▲小口長(慶北)▲橋爪芳樹(平南)▲坂田文吉(慶南)▲田邊小尉(京城府內務課)

네번째열리는 가정부인들노리대회

오는열흘날의정부직동에서 마금은팔일날까지

결실의 가을! 수확의가을! 야에는오곡과 각색과일이 익어 무르녹고 하늘이놉흐며 날세는 맑어서 대자연은 산으로 들로 사람을 손짓하야 불르고잇다본사가 해마다한번식 가정에서칩선과 어린이양육에만 골몰하야 자연과 접촉할기회가 업는일반 가정부인을 위하야 주최하는제 사회가정부인들노리대회는 오는 십일(일요일)에 경치조코밤의명소인경원선의정부(議政府)역전직동(直洞)에서 열기로되엿다 당일은 맑은하늘아래에 물과산 풀단풍등대자연을 배경으로 밥줍기와 보배찻기등 자미스러운여흥이만흘것이고 또 장소가 멀지도 갓갑지도안하야 하루노리에 가장적당할것이니 일반가정부인들의 절대한 지지와 참찬을바들것이다 정원은 이백명이비는 팔십전식으로 희망하는이는오는팔일오후네시까지 본사사업부에신청하면 조타고한다

音樂報國 大演奏會

明夜府民館에서

경성고등음악학원(京城高等音樂學院)주최와 경기도 군사후원련맹 경성군사후원련맹당국의 후원으로 명삼일 오후칠시부터 시내태평통(太平通)부민관(府民館)대강당에서 열리는 음악대연주회(音樂大演奏會)는어미 보도한바인데 이대회는 출연하는 악사가사계권위들을 총망라하는만치 미리 그성황을 기대하게되는바어니와 대회의 수입전부를 국방헌금으로 하게되는바이니 더욱 의의잇는 조선악단의 일층진흥됨을 이룰 계될모양이요 당야 푸로그람은 다음과갓다

第一部

1、男聲合唱 京城高等音樂學院生徒 指揮 五十嵐悌三郎 伴奏金[illegible]

2、바이올린獨奏 피아노 金元福

3、테너—獨唱 伴奏 安基永

4、피아노獨奏 李興烈

5、바리톤獨唱 伴奏 李升學

6、男聲合唱 京城高等音樂學院生徒 指揮安聖永 伴奏金[illegible]

第二部

1、소푸라노獨唱 朴景嬉 伴奏 金元福

2、첼로獨奏 本管伸光

3、테너—獨唱 吉澤光 伴奏 李寅善

4、바이올린獨奏 洪蘭坡 伴奏 金元福

5、테너—獨唱 文譜明 伴奏 金元福

6、絃樂四重奏 第一바이올린 安炳玟 第二바이올린 崔虎永 첼로 本管伸光

南北十一强陣出場한 中等蹴球戰開幕

培材、商工、載寧明新等勝捷

今日清凉里大豫球場

조선축구협회주최의 제일회전조선중등학교축구선수권대회(朝鮮中等學校蹴球選手權大會)제일일은 예정과가티 금이일오전구시사십분부터 청량리정대예구장에서열리엇다 모교의명예를걸머지고 용약출장한 남북의강호—평양고보(平壤高普)、재령명신、해주고보、경성농업、청주고보、대구상업、대구농림、전주농업、함흥고보、배재고보、제일고보、경성상공학원등 십일교의 입장식이잇서 회장운영사로부터 개회사가 잇섯고 심판부 김화영씨의 경기에대한 주의설명이 잇슨다음 이날의 제일전인 재령명신과 평양고보의 제일회전이 예정을 개시되어 명신군이 불전일승하엿다 그리고 청개잇슨 대구농림대경성공업원전으로부터 열리여 석양 때까지의 전적은 다음과갓다

商工2 大邱1

【前0…0、後1…1、延1…0】

대구농림대경성상공의 제일회전은 동오전십시십분부터 김화영(主審)、김묘원、홍철칠(線審)삼씨심판아래 대구선축으로개시한바 연장전에드러가 원래의대구농림군이 석패하엿다 어리하야 상공학원과 명신군이 준준결승에 대하게되엿다

【商工】

FW	國起鎭林錫、炯良谷鴻良、金金鍾朴
HB	錫浩潤、仁正德、朴朴朴
FB	奎熙、基龍、李金
GK	丁道鎭

【大邱】

FW	富昭烈村九、樂東大斗正、具張朝李秋
HB	秀成、武得吉、林金鶴
FB	朴在永、崔李
GK	朴鍾孝

培材8 啓聖0

【前5…0、後3…0】

배재고보대대구계성의준준결승전은 삼일에 행할예정이드바 하루를당겨서 이일오후령시이十분부터 김화영(主審)、김화영、최창흠(線審)삼씨심판아래 개시되엇스나 계성군이의외로 부진하야 배재군의『원사이드게임』으로 마치니 스코어는 팔대령이엇다 이리하야 배재군은 래사일에 행할조선신궁경기중등축구준결승전에 출장케되엿다

【培材】

FW	錦南東順俊、甲興洪琮喆、李李金黃朴
HB	松大仁、公丙永、金閔劉
FB	欽鎭、丙大、閔朴
GK	金然睦

【啓聖】

FW	恒泳鎬旭煥、大憲俊榮慶、金洪李洪金
HB	致龍主、鎭喜達、申金金
FB	鎭鎬、東昌、崔崔金
GK	朴光鎬

咸興高普野球優勝

【咸興】 咸興府內中等學校 野球聯盟主催의 四中等學校 野球大會는 예정대로 二十九日부터 三日間咸興公設그라운드에서 行하바 三日間모두 數千觀衆의 熱狂的聲援裡에 자못盛況을 이루엇는데 決勝局 咸興高普軍이 咸興商業을擊破하고 快勝하엿다 戰績은 다음과갓다

咸興商業14…2永生高普
咸興高普14…1咸興農業

【決勝戰】

咸高	0	0	1	1	2	0	1	1	2	
咸商	0	0	0	4	0	2	0	1	0	4…8

今夜拳鬪

七時半本社講堂

興味津津할

조선체육회주최의 제十八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 拳鬪選手權大會 各級決勝戰은 今二日午後七時三十分부터 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擧行하기로되엇다 前夜의熱鬪를겪거서 推戴된 猛將들만이 登場하는날이라 斯界의人氣는 이에 總集中되고잇다

高商主催 中等庭球

善隣、徽文各勝

京城高商主催의 第十六回全鮮中等庭球大會第一日은 二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擧行하바 參加校는善隣、京工、京商、中央、普成、道商、徽文、仁商、中東、京城商工、龍中、養正、東星商業等十三校로서 이날 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다음과가트며 第一戰인 普成對義州農業戰은 義農이 出場치 안어서 普成不戰一勝햇다

【第一回戰】

(善隣)孫日煥 梁光鎬	4…0	(京工)金鍾千 鄭雲鎬
(善隣)李漢旭 朴英洙	4…1	(京工)成瀾 李台鎬
(善隣)朴鎭夏 金炳斗	4…1	(仁商)李南馨 金重鎬
(徽文)金鋼培 申東鎬	4…0	(仁商)李鍾國 金泰
(徽文)金漢興 裵裕孝	4…0	(仁商)金天中 賈在佑
(徽文)孫永斗 金南斗	1…4	(仁商)朴亨植 黃河淸

【第二라운드】

(善隣)金鍾大 申東鎬	4…3	(仁商)朴亨植 黃河淸

(寫眞은 今日開幕된 中等蹴球戰光景)

流浪癩患者등쌀에 衛生當局頭痛

大擧떼를지어道廳에陳情 小鹿島行을嘆願

요사이 시내에는 문둥병환자의 거지들이 상당히 만히 돌아다니는데 경기도 위생과에도 매일과가티 한두명의 문둥병환자가 소록도(小鹿島)에 보내여 달리고 청하여오는터인데이일오전에도 십여명의 문둥병환자떼가 몰려와서 직접게원들의자리에까지와서 소록도에보내주던지 그러치안흐면 본적지로갈차비를 차려달라고 간청하여왓다 위생게에서는 아직 그들을위한 시설이 충분치 못 하야 도저히 전부 수용할수업는 현상이니만치 우선여러가지 의론의말로 돌려보내엿스나 금후도이러한일을 매양당할것가태서 머리를알코잇는터이다

家庭不和로自殺

부내혜화정(惠化町)삼오번지의 사십사호 김영택(金永澤)(二七)의처 박원주(朴元俊)(二)의친정은 가정불화로 고자살을하엿는데원인은가정불화이다

今後當分間 團體取扱中止

特殊事情은調查後認許

작일야반부터 렬차운전시간이 평소대로 회복되게되나 단체(團體)와 대절(貸切)려객은 아직당분간 취급하지안키로 되엿다 그러나 철도국에서 특별히 사정을참작하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것은 승인하게로되엿다 그리고 각구간의『하이킹』혹은 탈공지대에가는 려객에게는 종선대로게이힉이잇슬것과 발매할터이라한다

列車時刻平常化와 四日乘客의注意件

時刻改替에따라斷續이不一

본보에 이미 특보한바와가티 렬차의 운전시간은 사일야반부터 드듸여 평소대로 실시하기로 되엿는데 현재실시중에 잇는 림시렬차운전시간으로부터 평소의 운전시간으로 박귀게될 으로 말미아마 려객으로서 정거장에 또는 마즈막 도달하게되는 정거장등에 여러가지를 미리 아러두어서 별안간에 도중에서 랑패를 보지안케될 주의할점이 만타 그가운데서 제장중요한것을 들면 다음과갓다

▲시월사일 오전령시오분에봉천(奉天)을 떠나 부산(釜山)으로가는 제일천일백이렬차는 편성하대로 그냥이틀동안열한시십분 경성역발차시간부터 경성대전(大田)사이의 제삼백일렬차、대전 부산사이의 제십이렬차에게 승함으로써 경성으로부터 목포(木浦)로 가는 직통객차는 련결하지 안케되엿다 그래서 호남선(湖南線)방면으로가는 려객은 대전에 가서박구어타야한다

▲시월사일 오전일곱시십분에 봉천서떠나 부산으로가는 제일천일백십렬차는 평양역(平壤驛)에 이르러 한시간삼십일분동안 견디려서 제십렬차로되야 그역에서 오후 열한시오분에 발차하기로되엿다 그러고 이날 어렬차는 첫대는 취급하지안는다

▲시월사일 오후 한시오십분에 봉천을떠나 부산으로 가는 제일천일백륙렬차는 안동역(安東驛)에서 십오분빨리 발차하기로되야 제륙렬차로되여 오후열시사십오분에 출발하기로 되엿다 제륙렬차는제일천일백륙렬차와 비하야 정주(定州)평양사이에 정거하지안코 통과해버리는 역이 만흐므로 이구간의 려행객은 특별히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이제 륙렬차는 제일천일백륙렬차의 편성을 그냥 계승하게되므로써 여닐이렬차에는 식당차가 업다

▲시월삼일 오후열한시이십오분에 부산을 떠나는 제일천일백삼렬차(봉천행)는 사일오후열한시 오십구분에 정주(定州)에 도착하는것으로 운전을 그치게되므로 정주여북으로 가는려객은 게속하는렬차가 업게된다

▲시월사일 오전열시사십오분에 부산을 떠나는 제일천일백사렬차는 사일오전 신의주에 도착하는 로 운전을 그치게되므로 경성이북의 려객은게(?)로 렬차가 업다

▲시월사일 오전일곱시오십분에 경성역을 떠나는 제오백일렬차(청진행)는 오일 오전 청진(淸津)에 도착하는 로 운전을 그치게 되므로 청진이북의 려객은 게속하는렬차가 업다

▲시월사일 오후다섯시오십분에 청진(淸津)을 떠나는 제오렬차는 당일 오후 서진에 도착하는것으로 운전을 그치게되므로 서진이남의 려행객은 게속할 렬차가 업다 그러므로 이상의 각렬차를 타는 려객은특별히 주의해야한다

少女兩名轢死?

咸安—郡北、大邱—慶山間서

卅日午後驀進列車에

【釜山】 지난 삼십일오후세시오십분 진주(晋州)발삼랑진(三浪津)행제이백사렬차가 함안(咸安)군북간 삼랑진기점 이키로되는 지점을 통과할지음 나어인일을 가랑되는 소녀가 선로를 횡단하려다가 충돌되어 즉사하얏는데 그부근에사는 정경삼(鄭敬三)의삼녀 정순자(鄭順子)(十)로판명되엿고 또동일오후일곱시사십분 부산잔교발봉천행렬차가 대구(大邱)고모(顧母)간 부산기점칠십이키로되는 지점을통과할지음에 나이신오륙세되여 보이는 소녀가 선로를 횡단하다가 충돌되여 즉사하얏다는데 그소녀의 신원은알수업다고한다

運動會노리는窃盜

지난이십칠일부터 삼흥(三興)보통학교에서 운동회를 성대히 거행하고잇는데 그 보통학교에서 사십일(?) 씨내(?) 학교(?)에서는 이 바뻐서노아두엇든 소년소녀들이 잇섯는데 이것을노리는 절도배가 잇다하야 그리하야 주의를 각별히하기로하는한편 시내각서에서 눈을 불이는 소위 학교들 주위에서 수색중이라한다

大沽에도虎列刺

어미八名患者가發生

【仁川】 부산(釜山)에 온통괴질(?)의 위세가 한창이니 인천에서도 외항선박에서 혹시나 나올지 모르는 호열자를 경계하는 한편 인천의 경찰과 항구(?)간의 교통이 빈번한곳으로 이러한 전염병을 렴려하야 오는사람들의 게승(?)을 엄중하게 행하고잇는데 이번 대고(大沽)에 벌서 팔명의 환자가 발생하야 인천과 천진(天津)간을 항행하는선박의 관계로 인천부(仁川府)에서는 수상경찰 각방면과 협력하야 만일을 경계하고잇는중이라한다

獵奇的殺人事件

犯人踪跡은依然杳然

【仁川】 기보—부천군서곶면공촌리(富川郡西串面公村里)계양산(桂陽山)어대 살인사건은 외자산사건이라 하며 그후 인천경찰서에서는 부천군일대의 각지를 엄중수색하얏스나 아즉도 그범인의 종적은 오리무중이라 한다 피해자 김 모(金某)이라는 녀자는 시흥군(始興郡)수암면(秀巖面)에 살든 김동순(金東順)(二七)으로 판명되여 범인은 그의 남편 부평(富平)영등포(永登浦)등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계속수사중이라한다

『日產』計畫中의 南浦製氷工場流產?

道當局의『讓步』反對로

【鎭南浦】 일산(日產)계통인 일본수산주식회사(水產會社)가 진남포에 제빙공장설치를 계획중이라함은 또 평남도당국에서도 진남포어업조합(漁業組合)등과 협력하야 제빙공장(製氷工場)설치를 명령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삼십일 일본수산주식회사에서 삼포(三浦)중역이래남하여 공장지대를 시찰한후 도당국과 절충한결과 도당국에서는 그규모의 제빙공장을 설치할계획을 양보하라고 진정하엿다고한다 그러나 도당국에서는 영리회사설치를 위하야 도의방침을 변경하기곤란하다고 하야 이문제는 장차어떠케나 진행될는지 매우주목되는바라고한다

鎭南浦렬시料도

一日부터引上

【鎭南浦】 진남포렬시업자등은 물가폭등을 리유로 평남도당국에 선청중이라한은 기보한바어니와 도당국에서도 어러가지로 고려한결과 시월일일부터 일율이할을 인상하고 요리점 오십전을 인상하고 도일본기정에서는 오십전으로 되엿다 또 진남포에서는 소나 돈—까지도 동일 인상을 실시하도록 되엿다 부화하여 메—타제를 평양、진남포부에서는 발행하기로 되엿다고 방금조사연구중이라고 한다

朝鮮人炭坑勞働者 大量渡航要望

時局關係勞働力不足으로

條件附로承認方針

부족을 늣겨왓슴으로 어대책이 로 지난이십칠일사회에서 소반과 본대로동자의 채용에 두회와 조선로동자 채용조건에 가지를 상공대신(商工大臣)에게 진정하기로 결정하얏는데 조선으로부터 로동자를 보내는데대하야 총독부에서는대체로이의는 업는모양이나 다만 조건이잇스니 그것은제일로 대우문제(귀향려비등)와 제이로 로동자지도문제에대하야 절대만족을 여줄것이 그조건이며 이것만해결된다면 총독부에서 알선에 진출을 약속한다 그런데 조선로동자는 수년전과달라서 최근에는 현저히 소질이향상되고 훈련이잇는 제이므로 만일 희망을드린다면 로동력이 풍부한 조선으로서는 로동시장을 신개척할수도잇스며 득히 현재는 로동사업기라 각종호이거 일제히 유예하게될것이 서탄련합회에서는 서국관게로 석탄증산계획에따라 로동력의대 동할것이므로 열석어조의 호안으로서 계획한다고한다

模型飛行機競技

제국비행협회 조선본부에서는 체신국의 후원을 어더 오는이십삼일에 한강인도교 상류에서 제이회 전조선 모형(模型)비행기경기회를 열게되엿다는데 경기종목 등은 다음과갓다

▲競技種目 甲種 組析式胴體模型飛行機로 年齡滿十四歲未滿者 乙種 胴體式胴體模型飛行機로 年齡에 制限업슴

一、競技方法 滯空時間의 長短에 依하야 優劣을 定함

一、賞品及記念品 各種目共一等 一名 二等一名 三等三名에對하야 賞品을 贈呈하고 參加者全部에對하야 記念品을 贈呈함

一、申込方法 往復葉書에 住所氏名年齡及甲種 乙種別을 明記하야 十月二十日까지 總督府遞信局航空課內 帝國飛行協會朝鮮本部에 申込할것

殊常者품에生阿片

지난달삼십일오후한시반경에서 시내서소문정(西小門町)경성지방법원구내를 배회하는 수상한지나인한명을 법원경판힐소(詰所)의경판이 발견하고 조사한결과 몸에서생아편두봉지가 나왓슴으로 이를밤금서대문서에서 들지하고 엄중취조중이다

天氣豫報

豫報 明日은개이며 한때는흐린다

昨日最高	二二、三
最低	一四、三
今朝最低	一三、六
今日正午	二一、四

大連의虎列刺患者는 仁川經由入港者

眞性虎列刺로判明同時에 西海岸의防疫嚴密

이일아침 총독부위생과(衛生課)에드러온보고에 의하면 대련시의산항(大連市入船町)에서 철공업자인 한장수(韓長洙)(二七)는 구월초 한정남(韓長男)(咸南興南)으로부터 연락하는기선으로 인천(仁川)에드러엿다가 구월말경에 대련(大連)에 가서 다시가지어게에 제재하야 잇다가 삼십일선을떠당지 오후사시 진정호열자(虎列刺)환자로 판명되엿다는 급보가 총독부위생과에 드러왓슴으로 당국에서는 즉시 인천에 급보하야 엄중한조사를 행하는동시에 대련에서 파견된 의원들에게 엄체히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동시에 국거계환을 파견하야 그의 쥐를 잡거나 하는 등등 불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를 조사하는 동시에 인천항을 엄중히 경계하고잇다고 한다 그리하야 한장수는 인천에서 기선으로 전전하다가 대련에서 한참동안 머물다가 발병한것이어이며 인천당국에서는 극히조조하고 경게중이다

醫師에게生凉期의服藥을問議하십시요!

貴下가夏節酷暑로因하야身體의衰弱을感하시면 生凉期인只今에 適當한强壯劑를 服用하고 健康을恢復하는同時에 多寒에備할身體의抗病力을 强化하여야합니다。

그러나 適當한强壯劑를 選擇하기에는 너머나 그數爻가만허 貴下로하여금 誤選케되는일이許多하니 먼저貴邊醫師를訪問하시고 相議하신後 醫師의推奬하는强壯劑를 買得하여服用하시는것이 第一效果잇고 安全한方途입니다。

醫는仁術이니 醫師諸賢은반드시良心的으로諸位의相議에應하여 善導하여줄것은勿論이고 또한多年間醫藥研究와治療經驗으로서 貴下에게適不適을말하여그中第一効力이 優秀한强壯劑를推奬할것입니다。

世界的强壯劑네오톤 (Neotone)은 醫師가多年間使用한結果 그効果의優秀함을 賞讚하는 効果本位의 强壯劑로서 服藥의最適期인 只今에더욱適當할것이오니此際 그適不適을醫師에게 問議하십시요。

네오톤適應症은如下합니다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產褥・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 中 新 舊

네오톤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 上海・大連

男女 淋疾 蔘茸五淋錠

定價 二圓 三圓 七圓 十圓 大阪市 和光堂 製藥所 研究所

女性十月號 發賣中 定價二十錢 發行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特約店募集 一月收入百圓以上 ... 備力虎骨丸 天下無雙 ... 鎭南浦 新義州 ...

淋疾 根治 保證 日東淋藥 京城黃金町二丁目 ... 社會藥品部

梅毒 根治 도구도루丸 京城黃金町二丁目 ... 有恒社藥品部

不治의肺病이 ... 肺病 新藥유-고-루 三期用 二圓 二期用 五圓 初期用 五圓 京城黃金町 合資會社 有恒社藥品部

朝報園

適任者急募 事務一切을委任할만한 男子一名 十月七日까지 京城堅志町三八ノ四 ... 崔

掛時計日賦販賣 掛時計日賦販賣員 二十歲迄 十五歲ヨリ 保證金百圓及 ... 株式會社 村木時計店 京城本町 電話本局四七一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

故沈熏作 織女星(上) 配本 第九回配本今方開始!!!

天才作家 沈熏氏가가장藝術的 力量을 기우려自信을가지고 이 作品이니 朝鮮中央日報에 揭載되엿슬때 數百萬讀者로부터—特히 新婚前後의 女性讀者로부터—絶讚을 밧든것으로 氏가 優秀한 長篇小說作家로서의 地位를 確保케된것도 이作品을 쓴뒤부터의일이다 이作品은現代朝鮮에 아속도 極深가남어잇는 封建的 舊家庭의 모든人物과 그속에서 새싹처럼솟아나는 새로운 젊은男女의 苦悶의反逆을 그리엇이니 人形가튼 舊家庭에서 노리개와가티 길리든 女性、銀河를 건느다가 끈어진 烏鵲橋에서 織女星을 그리는 牽牛—펀치의 戀愛! 新婚旅行、誘惑、원망의愛、人間地獄 等等 맛잇는 조고만生命을 多端한 社會의 縮圖로서文壇稀有의 大力作이다。

再版 三曲線

李泰俊創作集 가마귀 (定價一圓二十錢 送料十錢)

好評嘖嘖

第一回配本 故沈熏 故鄕(上) 再版
第二回 〃 金東仁 故鄕(下) 三版
第三回 〃 李光洙 愛慾의彼岸 再版
第四回 〃 李泰俊 異域의死 再版
第五回 〃 咸大勳 純情海峽 再版
第六回 〃 金永八 第二의運命 再版
第七回 〃 朴花城 新女性 再版
第八回 〃 張赫宙 三曲線 再版

次回配本 織女星(下)

每冊頒價壹圓五拾錢 (送料十五錢)

京城府堅志町三二·振替京城七六六〇

漢城圖書株式會社

醬油調味料 昭和アミノサン釀造所 (營業案內書進呈) 釜山府佐川町三四四番地

本社京販 電②本一五九七番

名勝地와 有名商品 推奬 懸賞募集

懸賞應募規定

一、此頁에揭載된 各廣告中에 名勝地寫眞이各各挿入되여잇스니 熟讀하신後 ▲名勝地名 ▲商品名 ▲商店名、等을誤漏업시記入할것。

一、應募用紙는官製葉書에限하고 應募에制限이업는故로 一人이幾枚든지應募할수잇슴 (應募者의住所氏名詳記)

一、締切은十月二十日限 (當日附郵便消印잇스면有効)

一、等級은 嚴正抽籤하야 一、二、三、四、五等을定함

一、當籤發表는十月下旬本紙上

一、答案送處 京城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廣告部懸賞係

賞品

一等 (一人) 自轉車、플럼비아 포타블蓄音器、中 志望品一件

二等 (三人) 腕時計、京城放送局指定受信機、세一라 스케一트及同靴付、高級 핸드뺵、中志望品一件式

三等 (十人) 化粧品셋트、파이로트萬年筆、卓上時計、電氣다리미、白銅神仙爐、鍮器盒一雙、中志望品一件式

四等 (五十人) 石鹼半打、一人前半打式

五等 (二百人) 觀光一冊式

▲賞品은十一月十日까지發送함

初秋의 살겨침을 막고 榮養을 돕는

資生堂 コールドクリーム (콜드크림)

맛사—지에·洗顔에·化粧下에

通川 叢石亭

目下懸賞募集中

一圓以上買上하실때마다 빠짐업시資生堂샵푸一와懸賞應募券一매進呈

東京 資生堂 銀座

主治効能 (수치효능)

신경통·엇개결림·

류—마치스·運動에

因한筋肉及關節痛·

勞動에因한筋肉及關

節痛·打撲捻挫·胸痛·

새로운貼付劑

マーマの膏藥

이膏藥에는

이러한特徵이잇다

▼皮膚에잘붓고도곳쳐붓칠필요가업고持續的藥効잇슴

▼藥質이柔軟伸縮性이잇기때문에身體어느곳에부치든지動作이自由로움

▼藥効가揮散하지안코皮膚의氣孔으로부터持續的으로滲透하야快感을줌

▼藥을부친대로入浴해도관계엽고膏藥부첫든不快한자리(形跡)도엽고또絶對로內衣等을더럽히지안음

法住寺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

腹痛과胃腸에

効力百퍼一센트

各地藥店에잇슴니다

藥價	二十錢	五十錢	一圓	三圓

東京 安川晃榮堂

가을은 食慾大發의季節!

過飮過食으로 胃腸을 害케되기쉽습니다 胃腸病으로 여러나는 모든 障害에는 瞬間에妙効엇는 優秀한 救急藥으로서 內外에盛히 賞用되는 模範藥 安川코로다인을 잡수세요

黃海道 夢金浦

安川コロダイン

담기침 천식 백일해

龍角散

靈地와靈藥

기침약중 가장優秀한 효과를 가진靈藥龍角散은 그원료자체가 어느약보다도조흔것에 精選되여잇슬뿐더러 단지 본제만이 가지고잇는 麝香을몬이 가미되여잇는 까닭에 아모리 고질 만성 난증이된담 거침병일지라도 곳처 버리며 예방을방제하고 몸전신을 원져잇게 회복식혀줍니다

主効

천식、백일해

감기기침、호흡곤난

기관지카다루、목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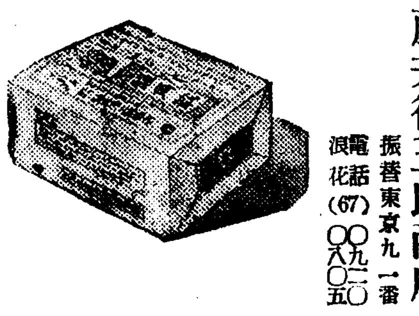
연후열、폐병거첨

혈담、홍역거침

定價

二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全國各藥店에잇슴



本鋪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67) 〇九二〇 〇八〇五

蝀龍窟

땅속에무친것을 환히아라내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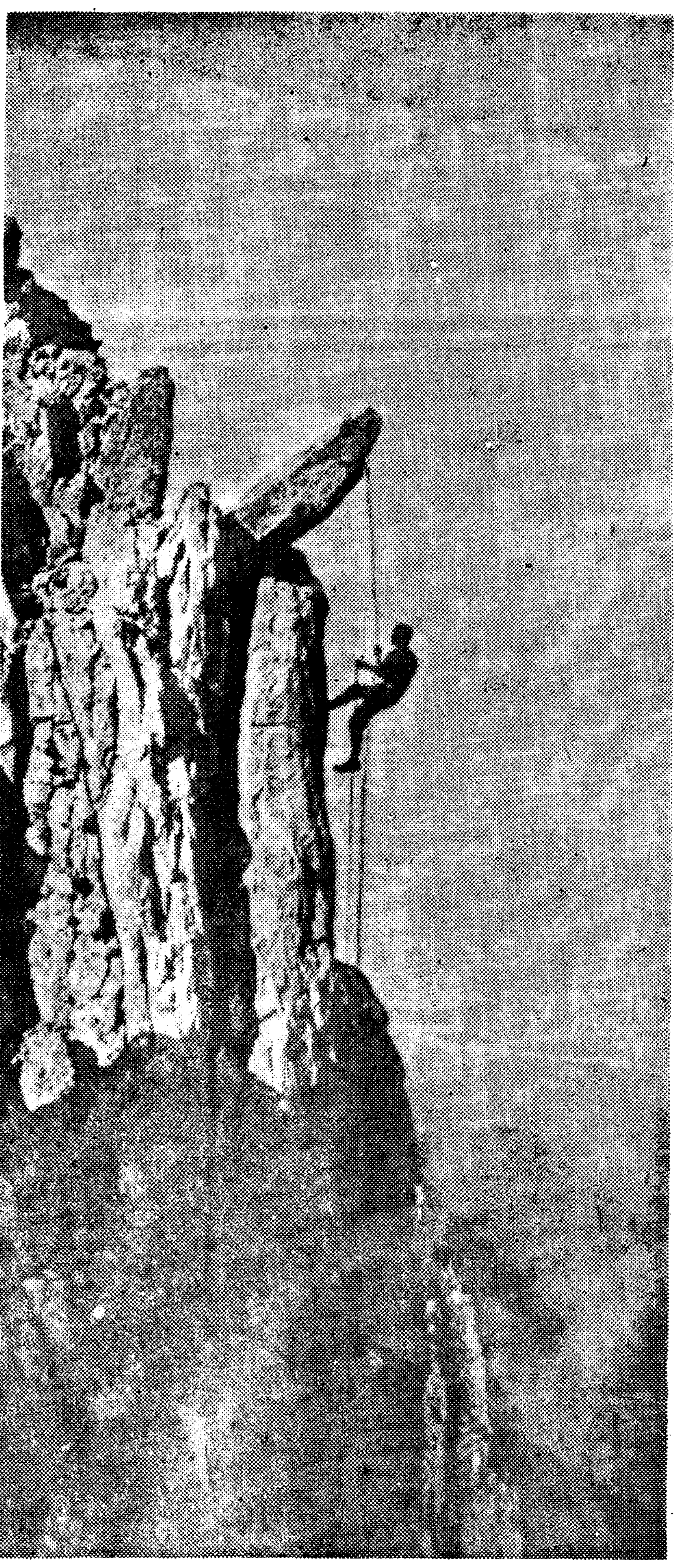
광산에서쓰는전기탐광

지는럿드 이금
지는럿드 이철

땅ㅅ속에는 금이니 은이니 구리니 쇠니 하는 여러 가지각색의광물이 다들어잇는데 그전에는 땅ㅅ속을 파헤치고서 광물이들어잇는 줄기 즉 광맥(鑛脈)이라고 하는것을 차저내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광물이 잇을줄 해서 머처럼 땅ㅅ속을 파헤첫다가도 실패를 보는 수가 잇고 또전연 광물이 업스리라고 내버려둔데 실상 만히 들어 잇는 수도 업지 안습니다。 그런 폐단이업시 백발백중 알아마칠 도리는 업겟습니까? 그러라면 우리인류들의 힘을 얼마나 절약하게 될것입니까? 요사이는 전기(電氣)를 가지고서 그땅ㅅ속에 광물이 들엇는지안 들엇는지 알아 내는 법이 잇습니다。 그걸 전기탐광법(電氣探鑛法)이라고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도 아다。 본래 이땅우에는 어듸나다 소의 전기가 흘르고잇습니다 즉 모릅니다만은 그땅우에 흘르는전기가 땅속에들어 잇는광물로인해서 만흔 차이가 생깁니다。 가령 보통땅에는 몃백메터면적(面積)에 대하야 천분지일(千分之一)볼트 즉 밀리볼트의 전류가 흘르다가도광맥이잇는우에서는 꼭 그만한면적에대해서 전류의몇배를가리어버리는것입니다。 몇배시 요기서 조기가 맥매러안되는데도 차어져 나갑니다。 그러고보면 전기탐광법이란아조 용이하게될수잇습니다。 즉이면과 저면의 전류를 따저서꼿 알수가잇는것입니다。 물론 그전류를 따지는데는 여러가지의 복잡한기계와수속이 필요하지만은 원칙(原則)은 우에말한바와가리아조 간단합니다。 그이외전기탐광법의 또한가지로는 땅속에 전기를 통해서 어떠케 저항되나 그것을 보아가지고 알아내는것입니다。 그건물론 그땅속에 어떠한 광물이잇고 업는데 따라서 전기에대한 저항도 틀리는 까닭입니다。

럭글라이밍

여러분이 배랑을 질머지고 노픈산에 올라가보신일이 엇스시지요 서울로치면 삼각산백운대란든가 관악산연주대가튼 아주 험한 산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다니시는 이런산봉오리까지에는 전에다니든어른들이 길을 맨드러노아서 힘만들뿐이지 누구나 오르나릴수잇게되어잇습니다。 그러치만 한번도 사람이올라보지못한 산봉오리길도 업는 까가지른석벽과 낭떠러지를 오르는 등산가들은 무슨수로그럴까요。 그분들은 굵은 밧줄과 『피클』이란것을 가지고 그무서운 바위돌을 기어오르는법을 알기때문입니다。 즉 『럭크라이밍』이란는것인데 이말의뜻은 바위를 기어오른다는뜻입니다。 아모리까가진산이라도 밧줄과 피클과 그리고 손꼿, 발꼿, 턱팔뚝 이런것을 용케써서 꼭대기까지올라가고야맙니다。 여러분은더러등산탐험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게시겟지요 그때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기어오르는 그광경을 한번생각해보십시요 참말 아슬 아슬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케 어려운 『럭클라이밍』도 잘하는분께 배워연습하면 누구나됩니다。



고흔저녁노을 엇재서될까

이것은먼지의작난

어둑컴컴한 방안에 해빗치 드러오면 그빗줄을따라서 방안에 몬지나 날러단이는것이 환하게보입니다。 몬지는 이와가치 광선에 따라서 눈으로 볼수잇는것도잇스며 또한 현미경이안이면 도저히볼수업시 가는것도 잇습니다。 『에-켄』이라는 학자님의 발명한 몬지측정기(測定器)로 재여보면 지면(地面)에 갓가울사록 몬지낫개가굵다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노피올너갈사록 먼지는 적다고합니다。 일립방(一立方)메-터가운데 몬지가얼마나 드러잇나하면 맑음하게개인날에는 십삼만개 가량이며 비오는날은그 사분지일인 삼만이천개가량이라고합니다。 불란서서울 파리에는 일립방메-터에 십만개로부터 십이만개의 몬지가잇고 영국런던에는 십사만개 가량이라고합니다 그러나 미국럭키-산맥의 노픈산우 이천메-터쯤되는 곳에는 겨우 사백개밧게몬지낫수가 업다고합니다 지구의표면에 몬지가 제일적은곳은 바다한복판으로서 태평양가운데는 일립방메-터의공기가운데 겨우십칠개밧게 업습니다 몬지는 마시면 위생에납부다하야모다 실허하나 그 반면에는 또한큰효과도잇습니다 몬지를싸고 공기가운데잇는수분이 뭉처러서 구름과 안개가되는것입니다 더큰 역할은 태양의광선을 반사하야 여러가지 빗갈을 만드는것입니다 푸른하늘과 저녁노을 이는 이몬지의힘이만습니다 그리고 몬지가 호러지고 모어는데 따라서 날이치워지고 더워지는데 큰관계가 엇습니다。

算術풀기

◇渼洞公立普通學校◇

金麟洙先生

相當數

【問一】우물턱에서 水面까지 기피를재볼랴고끈을 세겹으로접어서 느어보앗드니 2m남고 네겹으로접어서 느엇드니 3m짧엇습니다 그우물의水面까지의기피는얼마나됩니까。

(注意할點)

(1) 끈의全長을1로보면

가 세겹으로접으면 $\frac{1}{3}$

나 네겹으로접으면 $\frac{1}{4}$입니다

(2) 그런고로세겹과네겹과의差는 $\frac{1}{3}-\frac{1}{4}=\frac{1}{12}$로 이差는 $2m+3m$ 에맛는데注意할일。

(3) 세번접어도남고 네번접어도남는境遇에는 (남는數－남는數)

(4) 세번접으면남고 네번접으면不足한境遇는 (남는數＋不足한數)……이問三의問題와 가틈。

(5) 세겹하야도不足하고 네겹하야도不足한境遇에는 (不足한數－不足한數)이라는 이세가지法을記憶하면 이런問題풀기는쉽습니다。

◀解答▶ $\frac{1}{3}-\frac{1}{4}=\frac{1}{12}$……세겹과네겹의差。

$(2m+3m)\div\frac{1}{12}=60m$……끈의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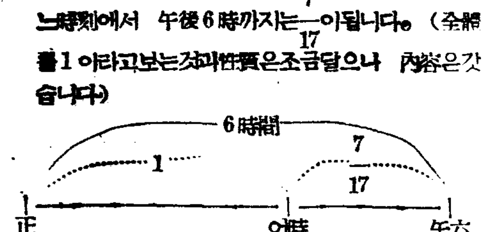
$60m\times\frac{1}{3}-2m=18m$……우물기피

答 18m

【問二】어느時刻에서 그날午後6時까지는 正午부터 그時刻까지의 $\frac{7}{17}$이라고하오 그러면그時刻은몃時몃分입니까

(注意할點)

(1) 正午부터 어느時刻까지를1이라고하면 어느時刻에서 午後6時까지는 $\frac{7}{17}$이됩니다。(全體를1이라고보는것과性質은조금달으나 內容은갓습니다)



(2) $1+\frac{7}{17}$이6時間이되는것은 이圖解로알수 습니다 注意하시오。

◀解答▶ 正午부터어느時刻까지를1로본다。

$1+\frac{7}{17}=1\frac{7}{17}$……이것이6時間이된다。

$6時間\div1\frac{7}{17}=4\frac{1}{4}$

$4\frac{1}{4}$時＝4時15分

答 午後4時15分

童話 상수리와박

丁明南

가을입니다。

보퉁이 둘메고 지팽이 끌며 나그네가 길을 걷니다。

앞뒤 산에는 단풍이 곱게 곱게 물들러잇고 목직이고개를 숙인 벼이삭은 쇠며 실듯이 황스러웟습니다。 밧데는 목화가 송이송이 하야케 피엿고 배를 볼룩 내밀어 꼿 튀여 쏘다질듯 영그른 콩깍은 누-렛습니다。

나그네는 풍년들어 풍성한 가을풍경을 바라보며, 산비탈을 내려와서 밧둑길을 더듬고 논둑길을 지나 언덕에 올라섯습니다。

거기에는 아람드리 커다란 한 참나무가 엇섯습니다。

나그네는 좀쉬양으로 참나무아래에 가서 펄석 주저안졋습니다。

헌데 바로 그엽헤 박넝쿨이 뻐더잇고 동구스름하고 커다란 참말 커다란 박이 한개 달려잇섯습니다。 박을 한참 구경하다가 나그네는 무심히 고개를 제처 참나무를 처다보앗습니다。 참나무에는 쪼고마한 참말 콩알보도 별로 더 크지안흔 상수리(도토리)가 수업시 송알송알 달려잇섯습니다

『이것봐라 우습고나야!』

무엇을 보앗는지, 어떤일을 생각햇는지 나그네는 갑자기 눈이 휘둥 그래가지고 중얼거렷습니다。

『요 아람드리 커다란 참나무에는 눈에 띄일뚱 말뚱한 쪼고마한 열매가붓고 실오래기 가튼 박넝쿨에는 주제넘게 커다란열매가 맷고……이제보니 참우숩고나야 커다란나무에는 박만한 이가튼 역시 커다란 열매가 달리여야 올흘것이고, 연하한넝쿨에는 도토리가튼 잔놈이 열더야 할거아닌가? 그래야 저이 마음에……

……하하하 우습고나야』

하고 껄껄 웃어댓습니다 마치 박이나 상수리를 처음보는사람모양으로……

그러다 나그네는 꾸벅꾸벅 졸기시작하엿습니다。 길걸키에 곤해서 고단하엿든것이겟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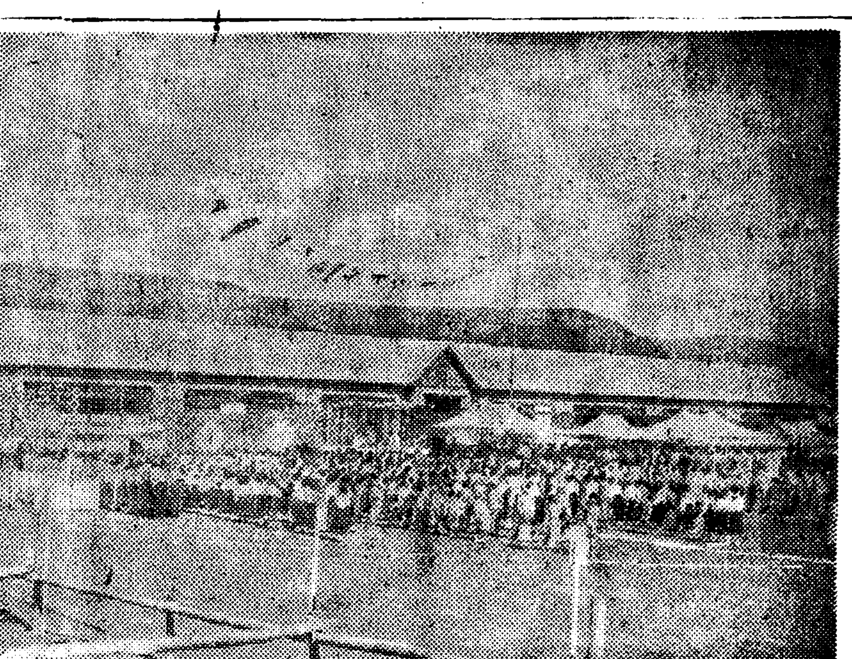
그때 갑자기 우수수 하고 참나무에서 상수리가한개 도라빠저서 졸고잇는 나그네의 머리 정바로 떼떼 굴럿습니다。

『저 또거!』

얼결에 나그네는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놀래엇습니다。 꿈결에 잠혀 상수리는 나그네의 골통을 마치엇든것입니다。

『아! 큰일날번 햇구나 도토리라 다행이엇지 만일에 까내가 중얼거린대로 참나무에 저럼 커다란 열매가 부러잇섯다가 떠러젓드라면 내골통을 깨트렷슬것을……』

상수리에 어더마진곳이 가려운지 한참 부비다가나그네는 또다시 보퉁이를걸메고 지팽이 끌며 길로나섯습니다。 (끗)



운동회소식

가을이되어 날이선선해지니까 우리는 밥맛이나고 기운이막나는것갓습니다。 벌서 서울안각공립사립보통의 교에서는 운동회를하느라고 밥벗습니다。 벌서한데도잇지만 아직 그날을손곱아기다리는데도잇습니다。

시골학교에서도 역시 그러켓지요。

저백두산눈치에잇는 멀고먼시골 혜산진(惠山鎭)에잇는 보통학교다니는 김군한테서 그학교운동회가 열렷다는소식이 왓습니다。(사진우) 그리고 충청남도서산(瑞山)공립보통학교에서도 지난이십륙일날 운동회가잇섯다고 박군이자랑삼아 소식을보냇습니다。 사진을보니 패재미잇섯겟지요 그리구 얼골이끄럿겟구 다리 팔도 좃아팟겟습니다。 그러치요 박군! (아래사진=모두 支局에서온 寫眞)

자미잇는 理科遊戲

끌른물속에서 금붕어가노라

보는 사람마다 하평을하고 깜작놀내도록 이상스럽고 재미잇는 리과요술을하나가르켜 드리겟습니다。

먼저 리과실험에쓰는 유리병 즉후라스코, 물, 금붕어 알콜램프 석냥 을준비하십시요。

준비가 다되엿거던 후라스코에 물을 갓득너코 그속에 금붕어를잡아너호십시요。

그다음에는 알콜램프에불을 켜서 그림에서보는바와가치 후라스코우쪽(上部)을 뜨겁게합니다。 조금뒤에 후라스코가 달면 후라스코의 위편물은 작고 끄러오릅니다

그러나 금붕어는 모르는척 헤염처단이기만 할것입니다。 뜨거운물속에서 금붕어가 죽지안코 헤염처 단이는말이 웬말입니까

그러나 알고보면 조금도 이상한일은 안입니다。 물은 부량도체(不良導體)입니다 그러므로 물 우쪽이 끄러도 그끄거운기운은 아래편쪽에는 전해지지안습니다。

물은 대류(對流)에 따라서 더워지는것이므로 뜨겁게 테워지는 위쪽만대류를 어르킵니다。 그러나 다른부분에 아모 상관이 업스므로 아래편물은 보통때와가트며 금붕어도 제대로 헤염처다니는것입니다。

科學館

거짓말참말을 아라내는기계

아모리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곳알수잇다는기계를 동경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의 호천행남(戶川行男)내전용삼랑(內田勇三郎)두선생님이 발명해내여서 거짓말쟁이들의 간담이 서늘해졋습니다 이기게는 사람의 몸속에잇는 전기가 거짓말을할때와정말을 할때가다르므로 이것을조사해내면 알도록 되여잇습니다。 이기게가 정말 용하게 마치 나하고 실험을 해보앗더니 열사람가운데서 다섯사람은 확실히 아라 마치엿습니다 이리하야 이것을 더좀연구해서 열이면 열사람이모두 확실히아러맛치게될때가 멀지안허서 오리라고합니다。

말하는저울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저울은 모두가 다눈금의무게를 글자로 표시한것입니다。 그러나 어번에는 저울눈들 말소리로 표시할수잇게 미국에서 발명되엿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활동사진의 리치를응용한것인데 저울눈들말로 설명하고한편으로『카-드』에찍혀서 나오게되는것입니다

물에서땅에서 다니는자동차

얼마전에 독일서 륙지와물에 마음대로 다닐수잇는 자동차가 발명되엿습니다 이자동차는 륙지에서는 한시간에 구섭마일을 다라나고 물에서는 십오마일을 다라나도록 빠르다고합니다 이자동차가 륙지에서는 보통자동차처럼잇스나 그차체가 물에담겨지면 곳물에 떠서다니게되도록되엇습니다 더욱이자동차는 네사람을 태우고다닐수잇는데 아프로는 군용에쓸수잇도록 되리라하야 세계의주목을 끌고잇습니다

漫畵 새의은혜가픔

우슴단지

칭찬밧는성악

딸『아버지 이동리서는 제가서 악을잘한고 모두 칭찬들이야 단이에요』

아버지『으흥 그래?』

딸『그래서요 저를보는 사람마다 왜 동경가는테로가서 성악공부를 안느냐고 그러겟지요』

아버지『흥 밤낫 귀가따거우니까 너를동경으로 쪼칠 작정인게지』

복수의아버지

손님『애 너의 아버지는 어듸 게시냐?』

복수『도야지 우리를 고치시느라고 그속에 들어가 게십니다』

손님『그럼 내가 그리로 가겟다』

복수『여보세요 우리ㅅ속에는 도야지와 아버지가 둘이 엇는데요 모자쓰고 섯는이가 우리 아버지야요』

長篇小說 찔레꽃 (128)

金末峰作 金麟超畫

찔레꽃 十七

외며귀미엇헤서 울을 피가 흐르는 조무러진 자리에 걱구러진채 엇개로 숨을쉬고잇는 녀자를 흔들며

『정순이 정순이 어봐 정순이 정신차려』

하고 녀자를안아 이르키려하나 녀자는 대답소리도업고 밥븜을 흘려나오는 선혈로 석해의 요녓은 점점벌게 물들어지고잇다。

경구는 위선 전화실로 달려가서 병원에 전화를하고 도라오니 아버지의 목에다 봉대를 감고잇는사람이잇다 경구는 그사이몰려온 식구들을둘러보며 허둥지둥소리를질럿다

『도적놈은 다러나도조흐니 의사의자동차가 드러오도록 얼른가서 대문열어놔』

그소리에 누구인지

『네-』

하고 나가는사람이잇다

『여보 정순이 정순어 정신채려 응 정순이!』

하고 업드려저잇는 녀자의엇개를흔드는 두취의음성은 분명히 통곡에갓가웟다

벌서절반넘어 봉대를감고잇든 손이 딱멈첫다 그리고

『왜그리십니가 저는 정신을채리고잇는데요?』

하고 은방울을 굴리듯하는 정순의 목소리가 들려자 두취는

『응?』

하고 주위를 도라보앗다

『정신을 채리십서요 정순이는 여기 잇습니다』

하고 봉대를풀고잇는 정순이가 두취의 얼굴아페서 소리를치자 두취는 비로소 정순을아라본듯이

『아-그럼 정순이는 다치지안엇군……그러면 그러면 이건 누구야?』

두취는 여우에게 홀리자람모양으로 어리둥절하여 바바닥에걸구러저잇는 또한사람의 정순을 드려다보앗다 순간

『영자야! 아이구 영자야 그래 네죽느냐?』

하고 사람들을 헤치고 압흐로 내닷는녀인 그는 침모박씨다

『아이구 영자야 어밀 죽여다구 어미가 너를 너를 이러케 만드렛구나』

침모는 거의 미친듯이 그는허-옛케 도라간눈으로 영자의상반신을 이르켯다 갑상선을 한일자로 칼날을바든 영자는 벌서 사지가 서-늘하게되여온다

『아이구 명천하나님 이놈은년에게 벼락을내려주서요 이년이 돈에 눈깔이어두어서…… 아이구-』

정순은 탈지면과봉대를 가지고 영자의경우로도라왓다

『마나님 좀붓드세요 의사가오기까지 좀업하나 좀막게요』

하고 침모를흔들엇스나 거이밋처버린 침모는 그런소리는 대답도업시 통곡하고잇다

『자 안선생님 저가붓들테니깐요 자 봉대를감으세요』

하고 경구가 영자의어개를 붓안엇다 그리고 그리는동안에 의사가오고 그리고 경관도왓다 상노아이가 경찰에다가강도가침입하엿다고 전화를한까닭이다

의사는 정순의 림기응변으로 줄혈을적게하엿다는것을 대단히칭찬하고 영자와두취를 자동차에실어 병원으로다려갓다

경관압헤 두손을모흐채

『나리님 이년을 이년을죽여주서요』

하고 침모박씨는 모든것을고백하엿다 순사가 위선침모를 서(署)로 대려가려고나설때

『진범인은 여기잇세요 호호』

하고 서편창에걸려잇는 커-텐 아래에서 녀자의우슴소리가 들려왓다 여러의눈은 일시에 소리나는곳을향햇다 피가무든단도를 한손에들고나오는 정순에인은 무엇이우습은지 생글생글 우스며

『저는 기생오월이에요 데려고가시면 자세한말슴을 엿줄테니까요』

하고 오월은 경관압흐로나섯다 경관은 포승으로 오월을 결박하야 [illegible]

『아이숭해 포승은좀푸러요 다라나지안흘테니……』

그러나 경관은 수갑으로 오월의 빼어가든두손을 철커채워버렷다

날이새엿다 상치오과가를 한이지나고 새로운아츰이도라왓다

정순은 아주도 열이내리지안는 옥경의 방으로 가려고 복도로 나올때 거기 죽은사람의 얼굴과가티 벳좌일흔 민수가 무슨을 울하고 서잇는것과 마조첫다。

『정순씨!』

민수는 체면도업시 마루바닥우에 꿀어안젓다。

『모든것은 나의 천박한 탓이엇습니다 정순씨!……어제밤 경애씨와함께 극장을 나와서 두어군데 차집을돌고 경애씨를 바래다드리려고 이곳으로 온때 벌서 열이 저질러젓습니다……모든것을 인제야 깨다랏소이다……정순씨!』

『……』

『당신이 경구군에게 나와는사실약혼한사실이라는것을 고백하신뒤 우리네사람이 다시맛나자는것도 나는 그흉악한오해때문에 물리처버렷지요 정순씨! 용서해주십시요』

『……』

『정순씨 나는 경애씨와 약혼을햇습니다 그러나 정순씨의 결백이 증명된이상 나는 지금새로히 당신의선고를 기다립니다 경애씨와 약혼파기하라하면 저는즐거히 그명령을 쫏겟습니다』

『……』

정순은 아무소리도못듯는것처럼 눈물을흘려 뜰을 바라보앗다 언제부터 호리엿는지 소나무가지에는 솜가튼눈송이가 소리업시 내리고잇는것이 눈에띄엿다

『정순이 차 잠자코만잇지말고 무어라고 말을해주어요 민수씨는 암만해도 정순이업시는 살지못할사람이니까』

하고 정순의엇개넘어로 말하는사람은 종이어경구처럼 혈색을일흔 경애다

『말을하라구요?』

비로소 정순은 입을떼엿다

『모든것은 될대로 되지안엇서요?……민수씨! 임의한녀자를 울렷스니 또다시한녀자를 울리는것은 너무잔인하지안어요?……두분은 임의약혼을하섯스니……행복되시기만 빕니다』

말을맛친정순은 싹도라서서 용길의병실을향하고 발길을 옴겻다 어룽주머니를 새로가라넛코 길은 색-색잠이드는모양이다 간호부도 밧게나가고 방에는 중기난로의 치르릉치르릉소리밧게지 극히 조용하다

어데서 레코-드소리가 들려온다 대청에엇는 라듸오인모양이다

『찔레꽃가치 괴롭그대맘가려내 가슴 내가슴에품어주거나 서내언덕 풀숨해 찔레꽃 괴네 희고도고흔 찔레꽃피엿다지』

하는 모성악가의 독창이다

창넘어 입도떠러지고 가지도 시드러진 찔레덤불위에는 때아니찔레꽃이 송이송이 날르고잇스니 그것은 겨울의선물 흰눈이다 가지우에 나붓기는눈송이! 다음송이가와서 안즐동안 자최업시 스러지는 눈송이! 그것은 하염업시 혀러지는 찔레꽃화변의하나하나이다 아니 덧업는 언생행복……정순의가슴을 기리자시처럼 할퀴여주고간 민수의사랑이아닐가

방긋문이 열렷스나 찬밧게날르든눈만직히고잇는정순은자기뒤에 사람이가까히오는것을 알지는못하엿다

『정순씨!』

나즈막이 불르는소리에 휘끗뒤를도라보니 그것은 해마진어린아이처럼 눈물어린두눈에 미소를띤 경구엿다 (끗)

YWCA主催

해마다人氣끄는

中國料理講習會

時日 十月六日부터六日間(午後二時로四時半까지)

場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舘(西大門町一丁目停留場앞)

會費 一圓五十錢·婦人에限합니다

講師 鄭順媛女史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鍊金機 創作方法問題

柏木兒

近來 ○○에 나타나는 한개의 新現象을지못한 兆候를 말하라면 레알리즘論의 擡頭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말을 한다고해서 나는 레알리즘 그것을 貶下하는것은 아니다 레알리즘, 더구나 쏘시알리스틱·레알리즘을 말하는사람이 실상 그論文을 읽어보면 文學史나藝術論한권도 변변히 읽지못한 친구이면서도 입으로 레알리즘만 말하면 아수 文壇大勳位의 功章이나 찬것이 文理와 論理도 通하지안는글을 五六回式이나 써가면서 제박게 다른 作家나 評論家는 마치 無識敎緊박게는 안되는것가티 大衝右突하는 꼬락산이가 보기실타는말이다. 그렁으로 애당초부터 淸眞한사람은 인제는 레알리즘이라말만드러도 嫌惡할지경에 어르것스나 그러라고 이것을 이대로 버리기는 레알리즘그것을 위해 ● 참아못할일이기에 두어마듸말을 해보기로하자.

흔히들 레알리즘은 創作方法으로서 提起한다. 그리고이것은 항상 쏘시알리스틱, 레알리즘을 말하는것이다. 그러타면 方法이란 實行의 始初가잇스뒤에 생기는問題이란큼 創作方法이라면 그것은 創作하기前作하는 그刹那부터 생기는 問題이다. 다시말하면 方法이란 무엇을하는 側面보담도『어떠케』하는 側面에屬하는 것이다.

그러나 쏘시알리스틱·레알리즘이란 單純히『어떠케』하는 側面에만 限한것이 아니고『무엇을』하는 側面까지 한데 包括한데에 歷史的優位性이 잇다는것쯤은 文壇의 大勳位功章을 차지안해도 세상이 다아는일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쏘시알리스틱·레알리즘을 擁護하고 發展식히려는 사람이 잇다는 레알리즘問題를밖낫 다아는常識圈內에서 뱅뱅돌면서 내로라고 호통만칠것이아니라, 이常識의 地點에서 어떠케해야 한거름 더나아갈수잇슬가하는것을 깁히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다시말하면 흔히 創作 方法이라는것이『어떠케』라는 側面에 그치는것이나마 쏘시알리스틱·레알리즘은 그背後에 잇는『무엇을』하는 側面까지 包括한것과가티 이두가지를 한목 包括한 쏘시알리스틱·레알리즘 그것의 背後에잇는것을 어떠케해야 把握할수잇슬까 널리 말해서『文學하는態度』이것부터 먼저 決定되지 아니하면 世界觀도 所用업는것이고 創作技術이란 더구나 말할것도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정말 레알리스트이라면 創作方法을 問題삼기전에 創作以前의 文學하는 態度부터 먼저 反省해야 할것이다

學藝

朝鮮文學의 現階段

混亂과 懷疑와 不安의 時代 ❷

朴英熙

近間의 新進評論家들은 異名同義의 過去의 生硬한 理論을 反復하고 잇스면서 그것이 各各 새로운 方向이나 가티 생각하고잇다 階段的文學任務를論하는 作家들은 「自己」들이 當面한朝鮮文學의 役割으로서自覺하면서 그作品은 또한 새로히 開拓된 境地가보이지안는다現今前面에 나선 評家와作家는그들이 開拓하려는 意慾과同一한 文學的探求의 根本的 基本을 確實히 세우려는意慾이缺如되여잇다.

그러면 그文學的探求라는것은 무엇이가. 現在 朝鮮文學에서보이는 基本問題가운데 첫재로말해야할것은 哲學的 槪念──卽辯證法的 變遷에關한 한槪念이다. 이것은 過去十年동안에 朝鮮新興文學의 意識問題에 關聯한 基本要素이엇다. 宇宙의 萬象은 變한다. 社會도 變한다. 人間도 그法則에 쫏는다는 實로 廣大한 世界를 所有하엿섯다.

그러나 이것은 絕對的이 아니고, 相對的임을 自覺하는데서 겨우 文學의危機에서 救命을하엿스나, 그進路가 아직도確實하지못함은 自覺的實行이 업는까닭이다. 그實行은 먼저 作家의 主體的條件을確實히 세워야 할것이다. 先頭에 섯다고 自認하는 作家들은, 過去辯證法的文學的實踐에 잇서서, 그誤謬를 指摘하고 批判한다고 하면서 「事實」에잇서서는그 根本的 誤謬를 淸算하려는것이 아니라極히散漫하고 曖昧한가운데서 겨우 枝葉에 조금부드치고 말엇으니한발은 過去에 두고 한발은 文學에 두려하나 文學的 素養이 不足하야 대단이 어색한 態度에서 머뭇거리는 現象이다. 文學을 文學的으로 硏究하고 創作한다는 正當한 理論은 新進似而非로評家들의 口癖을빌어 말한다면 觀念的이며 이觀念的이란말은 아조 不名譽스러운 名詞로 생각하고잇다 文學을社會的 歷史의 功利主義로서 文學自體의 境地를 蹂躪하는것을 無視한武器로 생각한다.

그러한 까닭에 아직도 그러한作家들의作品을읽으면 그題材의 單純하고 판에박은듯한 結論이 조금도 文學的進展이 보이지 안흐니 新時代를 代表하는 作家는 그貧難의生活狀態만을 取扱하는것으로 唯一의 길을 삼으며 評家는 그것이 寫實主義作品이라고 命名하며 그 寫實主義라는말이 最大의 榮譽로 作家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作品을 그러한 無知로부터 버서나 文學的基準에서 살피여보면 寫實主義는 커녕 粗雜하기 限이업는레벨以下의것이 만흐며 그러한 「作品」은 極度로 偏狹한 主觀强調의 宣傳文이다. 일직이 소타 푸로베르 모파상 빨작 떠스도이에프스키等 自然主義 寫實主義作家들의 作品에서 배울수잇는 文學形式과 人生觀 社會觀을내노코 생각하면 누구나 알수잇는일이다.

寫實主義作家는 그觀察이 客觀的임을 必要로한다. 그러나그들은 主觀的임에 空想的임에보다더 粗雜한 浪漫主義에 偏할는지는 모르나 眞正한 意味의 寫實派는 될수업다. 또 그人物配置도 各各人物의 生活의範疇를 破壞하고 極히主觀的結論에 急急하야 그結構가 極히不自然하게되며 그描寫에잇서서도 그

漢詩 (楊岡考選)

題秋夕 押明

三等之一 京城府光化門通一九三 崔承敎

穰穰百穀已西成
蒸嘗家家話月明
邱壟偏深霜露感
兒孫慣識歲時名
蚌珠盈海秋生晙
桂子飄風夜有聲
一曲會蘇誰解唱
世間嘈切摠無情

朝鮮文壇近狀

評界의새로운騷音 (3)

蔡萬植

그러찬어도 귀가 떠가운 評論界에서 또하나 騷音이 들린다. 金龍濟氏의文學『健康診斷』이 바루 그것이다.

옛날 岸曙는『글 땜쟁이』라는 눈물겨운 營業을하더니 또 近者에는 懷月이 文學을 저깔로갑어먹어보고서 맛을 알어마치는 妖術을 부리더니 이번에는 文學을 그놈어 석한지 病들엇는지 健康診斷을 爲業하는『文學醫員』이 생겨낫스니 文壇이란참 別別사람들도 다 모여드는곳이가보다 實로 朝鮮의 文壇은『봉로시방』다운 느낌이 업지안타. 하기야 文學醫員이 생겨나서文學을 노코 健康診斷을 하거나 멧스를드리대거나 또『文學宮당』『文學경쟁이』가 생겨나서 굿을하거나 경을읽거나 다잘만하고 울케만한다면야推仰도할 일이지마는, 우리文學醫員 金龍濟氏는 大端한 誤診을 해서, 진소위 脈도 몰르고 針대롱을 잡은格이니 그래 可歎할 노릇이라는것이다.

◇

文學醫員 金龍濟氏는 그 開業廣告라고 볼수잇는 朝鮮文學의 첫『診斷書』에서 이러케主張을했다.

즉 한個의 文學作品에잇서서 作中의 人物들이…… 金서방 피돌이 龍錫이 恩順이、點順이等두구할것업시 모두다 무엇무엇을 爲하야 무엇을 하는 어떠한사람 乃至 그들의 同情者들을 取扱한 作品일것가트면 그作品은 健康한 作品이라……고하고

이와 反對로 作中의 人物들이 가령 남의집 乳母로 들어간 女子거 사랑을 處樂을 제子息을 사랑하지 안는다거나 또 그의男便이 無力한 바면이라거나 어떠한 型의 勞働者가 아니라거나 할것가트면 그作品은 不健康한 作品이요 따러서 頹廢한 文學이라……고했고.

그러기때문에 그러한 健康한 作品을 쓰는作家는…社會的으로 利益을 끼치는 作家요 그러치 못한 不健康한 作品을 쓰는作家는 社會的으로 害毒을 끼치는作家라고 金龍濟氏는 興奮해서 부르지젓다.

(이 興奮했다는것은 나의 떼마가아니라 金龍濟氏 그분의 바루 自白이다)

◇

벌서 七八年前 評論家의 咸逸敦氏라는 분이 잇서(人事가 느젓거니와 咸氏는 健在하신지)『뿌르조아의 生活을 그렷스니 이것은 뿌르조아作品인 同時에 그作家도 또한 뿌르조아作家다』고 大喝하야 噴飯케하더니 而今에 金龍濟氏란분이 나타나서 文學을 診斷하여 가르되『作中의 人物이 非道德的이요 作中에 나오는 勞働者가 階級思想을가지지못하얏스면 그건 不健康하고 頹廢한 作品이다』고꾸지지니 是非는 제처노코當하는 나로서는 爲先 感慨가업지못하다고 아니할수업다!

◇

眞實과 現實은 어데로 갓든지 그 眞實과 現實을 억지로 속히고 꾸부려서라도 냄새가나는것은 또껑을 더퍼두고서 제한테 有利하게만 題材를 擇하야 제한테만 有利하게 써야한다는 所謂 푸로레타리아·아이데아리슴의 觀念的 文學初年兵들도 擁護할줄은 알고잇고 레아리슴의 걸어 眞物한 現實에서 出發해야 한다는것쯤 이미 常識化한 오늘이다.

南洋紀行 古都「바다비아」 (二)

李永春

「바다비아」에는 最高學部로서 醫科大學外에 法科大學이 잇는데 元來土民을 主로 入學식히든 大學이나 只今은 모다土人 中國人、和蘭人이 在學합니다. 土人官吏登用門으로 普通官吏는本 法科大學出身이 만히 採用되고最高官吏는 和蘭本國에 留學한이라야 된다합니다 土人은 上級官吏는 極히稀貴하고 大槪下級官吏가 만습니다.

【바다비아】의北端은 運河와突堤로 圍繞된 漁港으로 되여잇는데 이곳을 파삼(市場)이칸(魚)이라고 呼稱하며 그中에日本人 魚市場이 盛大합니다 日本人漁夫는 거이全部가 沖繩人으로 어웃만안이라 瓜哇各要地에잇서 遠深海捕漁를 만히供給하고잇습니다 數年來 政府는 和蘭商業을 保護하기 爲하야各方面에잇서서 外國人權利를 만히取消하고 잇는데 日本人漁業만은 그들의獨特한 漁術을 追從할수업서 從前의權利를 默認하고잇는 現狀이올시다『바다비아』中央部『카리포살』東側은 歷史的建物이 만흔데 그中에葡萄牙敎會(一六九五年建築)『메냥거트』(一六七一年建造)가 볼만하고 그左側에 大砲가잇는데 그尖端이 手形의特徵으로 鐵造되여잇서 婦女들이 만히香花를 피우며 子女의 生産을 祈禱하고 잇는것을 봅니다 이다『카리포살』의 南側은 雜踏을 일우는中國人市街로 有名한 瓜哇─中國料理店大東外에 多數『레스토란』活動寫眞館、市場이 密集되여잇고『바다비아』停車場앞길『아가도라』道에는 有名한 百餘年前의 和蘭統治政策의 (주權)『메─다옌트』의 敎首處이 잇서 通行人에게 對한示威敎訓을주는것입니다

中國人街를 通過할때에는 진졉마다 中國國旗가달렷는데 이는 昨日前本港에 入港한 中國軍艦艦隊를 歡迎하는 意味였습니다 이外에『바다비아』에서 볼만한곳은『코─닝스·푸레인』一大廣場인데『코─닝스·푸레인』파『와─털로─푸레인』의 二大廣場에 總督官邸 博物館 法科大學 知事官邸 KRM汽船會社 邸『호텔、네데란덴』外 各『호텔』이잇고 廣場周邊에는 一流의 倶樂部等이잇고 競馬場과蹴球場 運動場이잇고『와─털로─푸레인』廣場中央에는『와─털로─』戰捷記念塔이잇고 周圍에大藏省 陸馬加特力敎會『콩코─디아』俱樂部가잇스며 이廣場中에『윌헬미나』公園이잇습니다『바다비아』에 朝鮮人은五六年前까지는 十數人이잇섯스나 只今은 一三人에不過합니다 나는그中에當年 五十三歲의 中老紳士로蘭印政府 亞細亞局通譯官張鎬行氏를그事務所에차저뵈가히만나고 또局長과도 面會하엿습니다 只今으로부터 二十五年前 神戶商業을 卒業한後 蘭印政府에 勤務한지二十年 政府의信用이大端히큰模樣이며 氏의招待로 一夕을滋味잇게지낫습니다

『바다비아』에서 自動車로 南行五十分 汽車로一時間이되는곳에 나무만코서늘한 一都市에到着합니다 이곳은 世界一의熱이잇는熱帶植物園所在地『보이텐좀후』市올시다 當市는 一七四五年 그時總督『회임호후』의建設로서 蘭米蘭印總督의 居住地가되며 植物園을 後庭으로한廣壯한 總督官邸가잇서 一年의大半은 總督이이곳에잇고 官房事務所도 여기잇습니다

(寫眞은 中流土人女子)

科學

依然兵器의女王格인 火砲의種類 (中)

閔正勳

野戰砲射擊의 目標는 敵의人馬에잇다. 彈丸은 榴彈을 주장으로쓰고 榴霰彈과 瓦斯彈도가끔쓴다 野戰砲를 다시 細別한다면 野砲、騎砲、山砲、步兵砲、山地榴彈砲、野戰加農、野戰榴彈砲、列車砲、迫擊砲、高射砲等이다 그中野戰加農과 野戰榴彈等은 口徑一○糎以上의 巨大한것도잇다. 그것을 一括해서 野戰重砲라고도부른다.

(一) 野砲. 陸軍用火砲中에서가장 만히 쓰이는것으로서 街路上의 市民과도 가장낫이억다. 六頭의말로 끄는 바로그것이다 一種의 加農砲로서口徑은 普通七糎乃至八糎요 彈量은 約六瓩이다 仰角은 普通四十五度로서 例外로는 六十度以上의것도 잇다 또射界卽 左右로 돌릴수잇는 角度는 五─六十度요 最大射程은 一萬五千米內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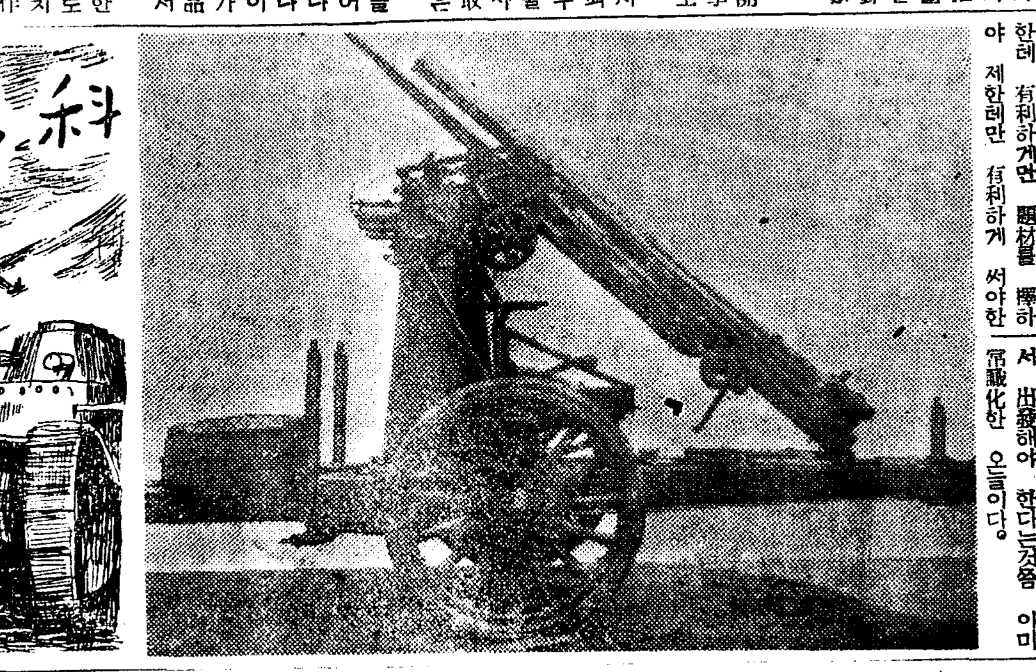
(二) 騎砲. 輕野砲라고 이름만한 一種의 加農이다 運搬에 便하야 과騎兵하게 行動할수잇슴으로 이러한 이름을 어든것이다 砲手는 모다 乘馬니 卽騎砲兵이다 構造上主要特色은 砲架車軸上 砲手座가 업는것이다. 前車上에 砲手座가 잇서도 普通의 境遇兵員이 올라가지안는다. 口徑은 野砲와가튼다.

(三) 山砲 野砲의 代用이되야 步兵을 掩護하는것으로 山地運搬이 可能한 野砲다. 全體가 가벼운것뿐이 아니라 또 몃部分에 分解도 하게된다. 그래서 四五頭의 馬上에 실고서 아모데나 가지고 갈수잇다 砲身重量은 百匹가량이요 口徑은普通 七糎半이다 砲身은 十四─五口徑이니까 一種의榴彈砲다 運搬하기爲하야는 砲身까지도 二個로 分解된다. 山砲의 仰角을 더해서 敵의 頭上에다가 彈丸을 떠어트리는것은 山地榴彈砲라고한다.

(四) 步兵砲 여기는 二種이 잇다. 하나는 平射砲로 口徑三十七粍되야 極히 가볍우니 同重量은 六十瓩、彈程은六─七百瓦、發射速度一分間二十發가량되며 또하나는 曲射砲로 口徑七糎乃至七糎半이되나 그역시 輕便을 爲主하야 同重量二百瓩以內요 射程은六[illegible]、有效距離는二千乃至四千米可量이다. 步兵砲가 생기게된理由는 步兵이 銃劍만이 아니요 機關銃을 使用하고 탕크를 使用하게된만큼 그런것을 깨트릴 火砲가 必要케 된것이다. 萬一 그런境遇에 砲兵을 기다리어깨트리자면 距離가 멀어서 自然 命中率이 얏게 되는까닭으로 步兵自身이 一種의 火砲를 가지게될수박게 업다. 이兩種以外에도 四十七粍級의 步兵隨伴砲가 만히 採用되고잇는 모양이다. 이것은 對戰車砲와 塹壕砲를 兼한것으로서 平射 曲射兩用이된다.

(五) 野戰加農. 十糎乃至十五糎級의것으로 射程九千 乃至一萬五千米다. 目標는 敵의 砲兵陣地 野戰掩護 콩크리트構築物로서 馬匹或은 自動車에 依하야 牽引되고 잇다.

(六) 野戰榴彈砲. 이火砲는仰角이 커서 彈道가 彎曲해가지고 敵의 頭上에가서爆裂되는것이다. 低伸彈道의加農으로는 射擊하여자 砲의 防楯이라든지 塹壕속의 敵에게 命中되기 어렵기때문으로 그缺點을 補充하는것으로서 口徑十 乃至十二糎 드들게는 十五糎도잇다. 重量이 무거워서 六頭의말을 써야한다. 重野戰加農이라고도한다. 射程은 一萬五千米內外、彈丸은 榴霰彈外에 劇爆榴彈을써서 建築物、野戰掩蓋、砲床等을 擊破키에 適當하다.



(寫眞은 野戰高射砲)

센티멘탈論

◇그語義에對하解明 ❶

崔載瑞

어느時代를 勿論하고 作品을稱讚하는몇개의代表的名辭가 잇는同時에 作品을貶하는 몃개의代表的用語가잇다. 現代批評에잇서서 作品이나作家를 非難 乃至 貶하는 말중에서『센티멘탈』가티 무서운威力을가진 「用語」는업다. 某某의作品은 센티멘탈하다고 批評家가 하번評하면 讀者는 그것만으로써 그作品이 놉흔文學作品으로서 읽을價値가업다고斷定하고 또그作家는 낫흘붉혀야된다. 그뿐만은아니다. 모든點에잇서 意見을달리하는 社會的批評家와 主知的批評家가 센티멘탈리즘打倒라는 一點에이르러선 共同態度를取한다『센티멘탈』의 判決을받고 作家의살길은 업다고하것다. 그러나그判決은 恒常 正當한가? 이判決을내리는 批評家들은 이用語에 關하야 果然 嚴密한 定義를 가지고 잇는가? 一考를要하는 問題라고 생각한다.

『센티멘탈』은『感想的』이라고 飜譯되며『人情에끌리기쉬운』이라든가『눈물짓기쉬운』이라는 意味로 通用되는모양이나 이것은 그代表的인 一面만을 指示함이니 그 「全面」을 알랴면 우리는 세가지意味를 區別할 必要가잇슬것이다. 卽 그量的意味와 質的意味와 또 그適應性이다.

위선 흔히 使用되는 意味는 그量的意味다『某某는 센티멘탈리스트야』할제 센티멘탈이란 그사람의 情緒가 刺戟에 反應되기쉬운點을 指示한다. 刺戟에對해서 情緒가 움직이는것은 人間의 天性이지만 이情緒의 反應이 普通以上으로(곳便宜上 잠시 普通이라말을 써둔다)鋭敏하거나 過多한 사람을 우리는 特히 센티멘탈리스트라고한다. 풀버레人소리에 가을의 野趣를 늣기고 落葉에 孤寂을 늣기는것은 누구나 經驗하는바이지만 이들에 한숨쉬고 눈물짓는다면 그는 발서 센티멘탈리스트라고한다 그것은 그情緒的反應이 普通以上임을 말한다.

그러나 센티멘탈리즘을 測定함에잇서서 普通이라는 「標準」은 大端히 漠然하다 사람은 年齡에 따라서 情緒의反應이 다르다. 原則的으로 幼年期엔 센티멘탈리즘을 모르고 少年期로부터靑年期에 이를깨닷고 中年期에이르런 이를抑制乃至 輕蔑하고老年期에드러서또다시센티멘탈리스트가된다. 그리고 가튼사람일지라도 境遇에따라선 —술을먹엇슬때 疲勞할때、病에걸렷슬때、或은 群衆속에서 興奮할때엔— 後日에생각하면 낫이붉어지도록 센티멘탈리스트가 되는수가잇다

그러닛가 센티멘탈리즘과 通常的인 情緒와의 境界를 嚴然하게區別할수는업다 다만『情緒의反應이 그刺戟에對하야 너무도過大할때엔 센티멘탈리즘이된다』하는 一般的公式을 設定할수잇슬따름이다 따라서 批評家는 刺戟과反應새의 量的均衡을 一一히 그具體的實例에當하야實證的으로 「判斷」할必要가잇다.

第二의質的意味는 普通으로압서의量的意味와混同하야 쓰는모양이나 嚴密을期하는 文藝批評에잇서선 當然히區別하여야될것이다. 흔히어던作家나作品이 센티멘탈하다고할때 그것은 그作家나 그作品에나오는 人物의情緒過多症을말하는것이지만 그러치안코 作家나 作品人物이 書的意味에잇서는 센티멘탈리스트가아니면서도 讀者에겐 센티멘탈한效果를 주는境遇가 잇다.

流行歌詞、大衆戀愛詩、家庭悲劇小說類의 讀者의低俗한感傷癖을刺戟하야 人氣를끄올라는 通俗作品에서 만이본다. 勿論 어늘境遇에잇서서 그歌詞作者나 그作品人物이 어느程度까지 센티멘탈리스트인것은 事實이겟지만 그보다도 더 읽는우리가 잘못하면 센티멘탈리스트가 되기쉽다는危險性이 問題이다. 이것은 압서의 센티멘탈리즘에對하야 「粗惡」한 센티멘탈리즘이라 할것이다. 이境遇에도 勿論 量은問題가되지만 그보다 더問題가되는것은 그質이다. 압서것은 情緒過多症은될망정 質에잇서선 純粹하얏다. 그러나 이번것은 量의多少보다도 그質부터 발서粗惡하다.

量的意味의 센티멘탈리즘은 그사람의 體質、年齡、敎養、環境、國民性等 個人의힘으로容易하게 調節할수업는 原因에서생겨나는것이지만 質的意味의 卽粗惡한 센티멘탈리즘은 作者의 不純한 動機로 或은 技術의未熟으로말미아마생기는境遇가만타. 滿天下의讀者를울리는 大衆作家는 흔히 世事에明敏한 리아리스트인法이다. 그는 人物과讀者의感情을 弄絡하면서 自己의効果에對하야 快心의微笑를띄운것이 또한境遇快作者自身의動機는 別로 不純치안타하면서도 「技術」의不足으로말미아마 讀者에게 센티멘탈리를주는수가잇다.

압서도 말한바와가티 情緒의 反應은 境遇에따라 千差萬別이기때문에 一定한標準은업다. 더퍼노코 情緒의反應이크다고해서 센티멘탈한것은 아니다. 그反應을支持하고 正當化할만한 씨튜에이슌이잇스면 그것은 센티멘타리즘이아니라 實로文學의生命인 感動이라할것이다 假令 讀者로하여금 必然的으로 悲哀를 늣기게할만한 道具가完備되엿잇다면 그것은寫實한悲劇이되지만 그러치안코 空疎한道具를 버려노코 歡喚만느려논다면 그것은 三流作家의로─맨스나、멜로드라마가되고만다. 이것은 作家의技術的訓練이不足한탓으로 생겨나는 粗惡한센티멘탈리즘이다

異域의晩秋를마저서 『日記아닌日記』 (二)

玄卿駿

九月十五日

大陸의 아츰저녁은 매우 쌀쌀하다.

그러나 점심때면 제법 놉우러서 江岸에는 힘찬잇는 색씨들의 빨내바망이소리가 사뭇 情겨웁게 들려온다.

또드리고는 헤우고 헤워서는 또드리고 부지런─히 빠는 초최한 그들의얼굴.

하늘도 맑고 물도 맑고 그리고 인제는 빨내도 깨끗─이 빨려젓는데 개일줄모르는 이마우에 서리운구름.

갓곳마다 빨내감은 안고대기건만 大陸가슴에 녹쓸은 근심은 언제나 씻츨른가?

九月十六日

新興都市 圖們은 몹시 騷亂스럽다.

그리고 진득안한맛이 업서뵌다.

整理못된市街. 바람이 한번 사납게 일면 대번에 빼뚜러질것가튼 빠락크式建物들. 게다가 道路까지 지저분하여 도무지 마음을 依托할수가 업서뵌다.

그런데도 建設을 向하야 邁進하는 씩씩한氣象은 市街全體에 充溢하여잇다.

어 國際都市가 생겨나자 여기에 모혀든 朝鮮사람은 勿驚 全人口의六割을 占領하고잇다한다.

그럼으로 거리나 골목을 돌아보면 事實가 朝鮮사람들이다 오늘도 나는 아모일도업시거리를 두바회세바퀴 돌아보앗지만 滿洲人은 열사람에 한사람式이나 만낫다.

異國아닌異國. 참으로 異國의 色달는情調를 느낄수가 업다

九月十九日

秋夕이라고 제법 웅성거리며 떠들어댄다.

무엇보다도 어린애들의 뛰노는 그모양은 못내 故鄕의秋夕을 그립게하여준다.

·밤이되여 月明하니 鄕愁의心情은 한칭더하다.

일즉이 타는듯한 六十度의高粱酒(胡酒)를 한잔 기우리고거리로 나서니 朦朧한醉眼에 비최이는絢爛한 네온의빗갈은 무지개가티 아름다워뵌다.

그리고 그속에서 흘러나오는 끼타─의그윽한哀調

누가 부르는것인지 은근하게 늑기는小夜曲은 정말로 우는것갓다.

仲秋月夜는 限업시 그윽하다 모든것이 소곳─이 머리를숙이고 鄕愁의젓줄에 매달린듯하다.

달밝어린 밤의거리를 헤매는 나도亦是 버리고온故鄕의 그림자를 눈아페 그려보게되며 다시한번 中天에 걸린달을 有情하게 처다보게된다.

어느덧 저도모르게 南區로 발길을 돌리니 길까에 나서서 오가는行人들에게 갓싼웃음을 던저주는 滿洲人唱女들의 淫蕩한 그모양.

『이쾌천디』『량쾌천디』人肉의저자(市)가 分明한데 精誠껏 丹粧한 코스잔들에서는 [illegible]이 우굴우굴 脂香을 풍기는구나.

暗黑街의奈落을 지나 江邊에 다달으니 달비츤 더한칭 푸르고 흘으는눈물은 銀魚가 궁실거리는듯 숨쉬댄다.

江언덕 자운한 풀비레 실흥업시 안자서 조용히 귀를 거우리니 벌레소리는 가슴에 저려들고 江건너 南陽쪽에서는 短嘯소리까지 들려온다.

마디마디 설움을 哀訴하는듯 旅路에 시달린 나그네의心情은 비길데업시 서러웁다.

더구나 이즈러고이즈러고 애쓰는 지나간時節의 그림자까지 머리속에 떠올으는 異國의달밤은 울어라도 보고십다.

아아! 달밝은밤 모밀꽃쇽듸부렵이면 그는 이술을 밟기를 조화도하엿것만.

그리고 벌레소리를 듯고도 우는 그엿것만.

인제 十年이란 긴─歲月을 지나서 남의 어머니가 되엿서도 如前히 달밝은밤 이술바를거닐며 벌레소리에 눈물을 짓는지?

時間은 모─든것의 掠奪者라니 흘으는 歲月의變에 따라 그의눈물도 인제는 痕跡조차업시 말러버렷겟지.

밤이 깁허감을따라 江邊은 더한칭 그욱하여지고 벌레소리만이 哀然하게 들려온다.

아아! 고달픈 이몸.

오늘밤 밤새도록 江邊이나 거닐어볼까.

(圖們東京村에서)

雜記帳

漢文訓釋 (鹿皮의日字인)

(注意할古典)

論語鄕黨篇에『廐焚子退朝曰傷人乎不問馬』라는 句가 잇는데 程宋以下 모든 註疏家들이『傷人乎아하고 不問馬러시다』와가티 解釋한것을 尹鏞라는 어른은 말도 生物인데 물 올리가 잇느냐고해서『傷人乎不아하고 問馬러시다와가티 고치엇다. 이 記錄은 孔子의 重人輕財하는 人格을 보이기爲한것으로 從前대로 解釋하는것이 無難할것이로되 새로운 解釋도 字句上만으로는 밧듯이 通치 안는것어 아니다. 또 孟子斂觫章에『斂觫若無罪而就死地』라는句가 잇는데 退溪가『斂觫해서 無罪히 死地에 나가는것 갓다』고 색인것을 栗谷은 이며 罪업는 소어니 갓달것이 무어라고해서『斂觫若하게 無罪히 死地에 나간다』고 고치엇다. 이글은 無罪한 사람이 死地에 나가는것갓다고 할데서 사람을 略한것으로 오히려、退溪의 색임이 順便할것이지만은 字句上만으로는 栗谷의 색임도 不可能할것은 아니다. 漢文古典에는 往往 이러한 爭論이 만타. 時間의 表示가 不分明하고 名詞의 格이 混同되기 쉬운데다가 句讀까지 죽부처 노핫기때문이로 그러한 爭論이 만흔것도 避할수 업게 되는것이다. 녯날 어느富豪가 七十에 아들을 나허 아즉 나히 어리고 마음씨 조치못한 사위가 잇서 그 財産이 곱게 傳치못할줄을 알고서 그財産을 全部 사위게주면서『七十生子。其非吾子。家產傳之女婿。他人勿犯。』하라는 표까지 써주엇다. 그아들이 나종에 커서 自己父親의 遺產을 차지하고자 멧번 呈狀까지 들엇건만 그표로 因하야 番番히 지고 말앗다. 그러다가그後 어떠한 원으로부터 그표의 秘密을 열게되엿다. 卽 그원은『七十生子나 其非吾子라 家產을 傳之하노니 女婿는 他人이라 勿犯하란』고고치어 푼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어듸든지는 이젓스나 내가 일즉이 野史人속에서 보앗다 勿論녯날에도 꾸며낸 이야기겟지만 模糊한 漢文을 證據들기에는 재미잇는 材料다. 오늘날 漢文의 素養조차 不足한사람들이 古文獻의 句讀을 마음대로 떼어서읽고 또 解釋한다. 그러분들을 爲하야 흑 參考꺼리나 되지안할가 적어두는바이다.

(錢 山)

新刊紹介

▲時事經濟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神田區富本町八 時事經濟社 振替東京二○八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基督敎報 第一二六號(週刊)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二五九○番 定價一部五錢

▲月刊로시아 十月 秋季特別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八番 定價五十錢 送料一錢

▲가톨릭靑年 九月號 發行所 平壤府箕林里 가톨릭靑年社 振替京城一五五九七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五厘

▲靑年朝鮮 第五號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丁目一六三 靑年朝鮮社 定價一部五錢

라듸오

二日 (土曜)

◇午後六時 어린이科學『가을花草』 朴萬奎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琉球風俗이야기』 每日申報 金日坤

◇同七時四〇分 時事解說 베르린로─마의樞軸 朝鮮日報 徐椿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 敵은幾萬 明新合唱團 指導 玄濟明

◇八時二五分 라듸오코메듸『約婚事變』全一景 配役 錫九…金昌基 紅芬(그의約婚女)池季順 明根…金永根 明順(그의妻)池崔順 老人(明根의父)朴漢壽 라듸오劇同好會 作及演出 金健 效果 許達

◇同九時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흥타령 吳翡翠 金蓮守

第一放送

三日【日曜】

◇午後六時 (東) 스켓취

◇同六時二五分 (京) 講演

◇同七時三〇分 (臺北) 講演

◇同八時 (東) 皇軍慰問夕

◇午後○時五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一、바이올린獨奏소나타 엑크레스作曲 작크、티보─ 二、피아노獨奏 가、夜想曲 B長調 나、練習曲 F長調 다、圓舞曲 C샤─프短調 쇼팡作曲 파하망 三、獨唱 가、搖籃歌 나、죽엄과少女 슈─벨트作曲 유리아쿨프 四、빠이올린과첼로二重奏 가、至樂 크렐리作曲 나、아를르의女子 間奏曲 비제作曲 바이올린 프릿츠、크라이슬러 첼로 후─고─、크라이슬러 五、하─프시코─드獨奏 가、가보트와 론도 G短調 빠하作曲 나、오─베른듸의부─레─ 란도우스카 六、첼로獨奏 가、協奏曲 다르퍼作曲 나、親愛한말 카사도作曲 카살스

◇同六時 童謠와唱歌 一、齊唱 가을노래 二、獨唱산새(尹基秀) 三、齊唱 타되오 四、獨唱 별(李貞姬) 五、齊唱 노래공부 六、獨唱 자장가(洪貞順) 七、齊唱 가을이라오 八、二重唱 산울림(洪貞順、李貞姬) 九、齊唱 추추 十、齊唱 한양노래 貞洞幼年主日學校 指揮 鄭上禧 伴奏 申叔德

◇同六時二五分 講演『虎列刺豫防에對하야』 醫學博士 晉宙鉉

◇同七時三五分 라듸오短篇『孫巨富』 沈影

◇同八時一〇分 (東) 피아노獨奏 一、告別奏鳴曲 플렛트長調 베─토─벤作曲 二、軍隊行進曲 슈─벨트作曲 豐田旭穰

◇同八時三五分 레오니드·크로이차─

◇同八時三五分 唱劇調 一、短歌 赤壁賦 二、唱劇調 春香傳中十杖歌 朴綠珠 鼓手 丁元燮

◇同九時五分 一、赤壁歌 二、平壤歌 三、달거리 韓英順 金眞紅

◇同九時三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翌日順序

第一放送

◇午前一一時五〇分 (東)野球

◇午後一時 講演(自新京)

◇同六時 (東)童話

◇同七時三〇分 (東)軍隊歌

◇同七時四〇分 (東)歌謠

◇同八時一〇分 (東)피아노

◇同八時三五分 (大)浪曲

◇同九時 (東)長唄

腸內의毒素吸着과 殺菌消毒의作用

下痢

アルシリン錠 (아루시린)

아루시린錠은 銀炭末一分과擴化銀硅酸四分으로製劑하엿다

아루시린錠은 一般泄瀉의誘因인腸內의催炎性物質、腸管運動亢進物質을그細細한分子의吸着解毒식히는同時에腸粘膜面을被覆保護하고有害細菌의殺菌腸內消毒의作用을發揮하야合理的으로泄瀉를消退식힌다。더욱이本劑는少量으로서能히그效果를나타내고또連用해도食慾不振과頑固한便秘等을이르키는일이업습。

【適應症】
一、泄瀉、腸內腐敗性異常醱酵
一、急性、慢性가다루、鼓腸
一、食餌에因한泄瀉、中毒症
一、赤痢、티부스等의傳染性腸疾患의泄瀉、腸結核의泄瀉

一〇錠(三〇錢) 二〇錠(五〇錢) 五〇錠(一圓) 一〇〇錠(一圓八〇) 三〇〇錠(四圓八〇) 有名藥店にあり

發賣元 武田長兵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衞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武田發賣品

演藝 娛樂

映畵著作權問題 司法省에서調査

監督, 作家協會에서도 이問題를積極的檢討

映畵의 著作權에對해서는 內務省警保局 圖書課가 主管事務로서 오늘날까지 調査硏究를거듭하기 벌서 十年間에 前後二回의改正을 行하엿스나 이것은 『著作權』으로서 文藝 美術 繪畫 其他 全般에 亘한것으로서 映畵의 特殊性을 考慮에 너흔것이아님으로 따라서 映畵著作權의 擁護에對해서는 不充分한것이여서 大日本活動寫眞協會에서도 여러번 映畵法의 製定을 機會로 著作權及興行權의 確立을 陳情해왓든것이다

그리고 司法省에서도 最近 브라!게의 問題以來 映畵著作權에對해서 眞摯한 調査硏究를해오든바인데 今番 다시 司法省에서는 이調査硏究에 着手하엿승으로 大日本活動寫眞協會에서는 著作權審査委員과 會見하고 懇談的으로 意見을 具陳하엿는데 映畵의問題는 著作權보담차라리 興行權의 行使가 重大한만큼 司法當局의 硏究의 結果가 重視된다고한다。

이러한 映畵法制定을 압헤두고 映畵諸團體는 種種問題를이르키는 映畵著作權에對해서 內務省 司法省과의 間에 懇談的意見의 交換을 여러번햇는데 日本映畵監督協會及 同作家協會에서도 司法省調査部 伊東判事를 招請하고서 ▲專屬씨나리오作家問題 ▲씨나리오를 會社에 提供하는境遇의契約問題 ▲著作權의讓渡問題 ▲著作權保護에關한問題等에對해서 懇談한바잇섯다。

百八十個의 大型自動車

將來準戰用?

近代的인 科學을자랑하는나치스는 今番가장 尖端的인二臺의 大型自動車라고해도 列車에 각가운캐라반을만드럿다 自動車의 內部에는 食堂벳드가設備되여『타우드 스피-카-』도잇고 해서여러가지使用되게되엿다 各種파-티團體旅行等에도쓰인다고하는데 그중에하나는 큰廚房까지달녀서 一日에廿五萬人分의 食事三食을 만들수가잇다고한다 벌서하나는 그中에 五十哩의 케-불과 百九十哩以內이면넉넉하다고하는 無線設備가잇서 三萬力은 一時에一萬五千의家族에 電燈을供給할수잇다고하니 萬一, 一個町村의電源이破壞되는때는 速히이車를달려서 그救急에應用한다고한다 特히 이車가一時에 百八十의벳드를準備해서 大概病院이면 리용할수잇다고하는데 結局이것도 將來의戰爭에備한準備라고한다。

오-스트리아 戰爭物發禁

오-스트리아當局은 야로슬라우, 하셋크의『조혼兵士슈와이크』를禁止하엿다 이興味잇는책은 大戰直後 歐羅巴에서널니읽혀지것인데 이것은大戰中체코슬로바키아의 兵卒의思像을석거서體格과 體得가 豊富한描寫로서 그것은 以前의오-스트리아 帝政時代의軍隊를樸撲한 매우 生彩잇는諷刺를包含한것이다。 그러나 小和主義와체코의 國民感情에 貢獻한바가 決코 적지안헛다。 그러나지금에와서는 이책은 거의다이저버려진것인데 이러한理由로突然 오-스트리아當局이禁止處分을한것은 아모리해도알지못할일이다고한다

비아리-의 新愛機

스타-의 趣味라면 가지각색이어서 乘馬니 드라이브니 별별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모-던이고 大大的이라고自任하는 위-레스, 비아리-의 飛行狂도歲久年深해가는데 따라서 인제는 趣味라는것보담도 成職이되여 갈사록 本格的으로되여가며잇다。 十六年間의 經驗과 조종사의 免狀까지가지고잇다 蓄積한 經驗을 자랑하는데 今番에는 三萬弗이라는 大金을 던저서 스틴손重爆機一機를 購入하엿다。 이것은 時速一六一哩어며 世界에서 第一安全한 飛行機라고하나 비아리-의 飛行術을安心할것까지는업다

寫眞은 新機를 購入해노코서 寢食도이저버리고 어린애가티깃버하는 비아리君

洋畵各社의 在庫品調 (一)

日本 RKO社의 在庫品 未封切映畵는 左와如하다。

『춤출거나』 아스테-아・로저-스─『보비-의凱歌』 보비-부린─『情慾』 안・하-딩─『證人席』 同─『摩籠部隊』 젬스러-・모리스─『新人豪華版』 하-엣드・히리야-드─『아버지의眞心』 죤・바리모아─『探偵合戰』『작크・오-키, 안・사잔─『나와다 드러갓다』 호이러-・우-르제이─『富豪一代』『에드와-드・아-놀트 케리-・그란드『特種戰線』 리!드레-시!─『부라운의空中戰』『쇼-・F・부라운─『깽과選手』 就球映畵『馬道殺人事件』 롬스行』 쇼-지오브라이엔─『豁風記者』 同─『大陸의快男兒』 同─『귀찬은사람들』 죤・크취웨-鑑督作品─『海軍에敬禮』 마-샤・한트─『自由의날개』『아이린・단─『퍼레이드의生涯』 진・레이몬드─『五兒成長』 되-온느姉妹。

Hommage a Portrait ② 스타-畵像讚

處女湖의물맴이!

"시몽아 너는落葉밟는 소리를조화하지안느냐?"

李軒求

野生的魅惑(차-밍)──『시몽』에게서 느끼는 平凡하나 適切한 印象이다 어듸자 그럿케 이쁘고 어듸가 그럿케 맘에드느냐?고 못는다면 어듸라고 꼭집어낼곳이업는 아름답지안흔 아름다움 이쁘지안흔 이쁨을 가지고잇는것이『시몽』의아름다움─곳 차-밍이다

어린애와가튼 處女美 아니 다른 어린處女! 이러케도 불러질것이다 分明코 우리눈앞에나타난것은 한處女엿다 그處女의 肉體와 精神속에 어딘지모르는 缺陷, 卽 다른女性은 다 가초아가진 女性美의한分이 不足한듯한 아니 다른女性보다 한가지 더만히아름다웁기에『시몽』이가진野生的이요 奇異로운 아름다움이 빗나고잇다。

공을가지고・작난치는 어린팽이(貓)─ 實로『시몽』은 이러한種族에 屬하는 處女다 어듸서든지 혼자놀고잇다 꼿과 나무와 시내와 한울과 별과 꿈하고도 함께 이약이 하면서 노는것이다 혼자 짜증도 내고 혼자 소리도치는 웅석바지 다 貴하고 膽이업시 깨여안고 입마추고한다 그러나 男性이아페서는 손까락하나 건드리기를 가스고 슬혀한다 민물에서뱀도는 물맴이!『處女湖』가 銀幕우에 나타나자 新奇롭고 凛凛하고 淸爽한 靑春의生命이 太陽빗을바더 自然속에서빗나는 强烈한感觸을 느끼게하엿다 都會에 사는사람이 恒用 이저바리기쉬운 自然─野生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얏다 山이라거나 벌판이라거나 하는 平面的인느낌이아니고 코미테 싱싱한 풀향기를 풍기여주고 살결우에 매끄러웁고 시언한 시내물이 瀑布가티퍼부어지는 살어서 뛰는느낌─이저바렷든 이感觸을『시몽』을 볼때 외롭에 느끼는것이다

그럼까닭으로─『시몽』이 스물다섯이라고해도 고지들려지지안코 저래가지고야 언제철나서 시집을가랴?는고 쓸데업는 걱정도必要업다 철안나고 나히를먹지안는處女!『시몽』의 生命과 차-밍은 여기잇다 그러나 어딘지 외롭고 쓸쓸하고 不幸하여질것가튼 근심이 마치 눈즈가을에벗을 쫏이며 落葉우를것는때와 개타『시몽』을 아끼고 귀여워하는이의 가슴에 떠오른다

『시몽아 너는 落葉밟는소리를 조와하지안느냐?』

京城近郊 하이킹코-스

幽邃奇絶한逍遙山코-스

玉碎銀飛하는瀑布도조커니와 錦繡帳가튼丹楓이사람을불러

『하이킹』코-쓰로는 相當히멀다고하겟는데 이코-쓰는 汽車를 만히타게되고 걷는길은 過히 멀다하지 안켓스니 里數로는 百三十里를 처야하는데 아모리 健脚兒라할지라도 하로동안에 거러서 往復을한다면은 到底히 不可能한 그만큼 먼길이다 京城驛에서든지 淸凉里驛에서 汽車를 잡어타고 東豆川驛에서 나리게되는때 車賃은 淸凉里驛에서 라면은 十五錢假量 차다 汽車를 타고가면서 沿線에 둘러싼 三角山一帶와 望月寺 道峰山 天竺寺等의 勝地를 展望할수잇스니 그山嶽의明美함은 果然 사람의 마음을 잇끌게한다 더구나 술척술척 스처가는 果樹園에 빨그레 잘익은 주렁주렁 달린 林檎은 보는사람의 口味를 돗게하며 발을멈추게한다 北漢 南漢 冠岳 이러한곳은 길도 險한곳이만흐며 大槪는一般的으로 健脚兒들의 밟어본곳이 찻는이가 그다지 만치안흐나 이逍遙山은 멀다고는 할지언정 汽車를 만히타게되고 걷는길은 不過 十五里남즛하니 하이킹코-쓰로 이만큼 便한길은더 업슬것이다 가을도 깁숙이 한창이라 滿山에 丹楓이들어 錦繡를 노흔듯도 아름답지 안엇스니 이勝景을 차즈려 數가는 것은 잘알수잇다 더욱이 한 一家族이 한자리에 모혀 하로의 逍風景丹楓노리를 할만한곳도 여기가 가장 適當한곳이다

平時에는 逍遙山臨時停留場이 잇서서 이코-스行脚에 至大한 便利가 되는데 列車時刻이 變更되자 只今은 臨時停留場이 업서서 困難하지만은 不日間다시 時刻變動이되면 前과가티 便利해질 것이다 臨時停留場이 업서도 東豆川驛에서 나려가지고 逍遙山於口에 까지 한二十分이면 닷는대 여기서오른쪽편으로 접어들면바로 逍遙山深谷으로 발을 돌리게된다 逍遙山은 山으로서 雄壯한 맛이잇다든지 史蹟으로 차저볼만한것이 잇서서 有名한것이아니고 그다지 널도안코놉지 안은 山이나 이山이 가진바는 寂寞히 사람의 마음을이슬고찻게하는것이 숨은 特徵이라하겟다

이山골작이를 드러서면 左右에 우두머니 서잇는 山들이사람의마음을 눈물겹게하며 아니볼래야 아니볼수업스리만큼 奇奇妙妙하게 丹楓들이

自然의

錦繡山을 이루우고 잇슴뿐아니라 산골물이 졸졸졸흐르는 물소리와 자조들리는 새들의 노래소리 솔솔가티 상긋상긋 불려오는 바람소리 이모든가 썩잘 어울리어 感傷的哀調를 띄우게한다 이山골을 걸어자며 生覺하면 別有天地는예가아닐가 십흐리만큼 발자욱 조차 떼여놋키 실흔곳이다 이곳에 小瀑이 잇는대 일홈지어 淸凉瀑이라고하는것이잇스니 飛流直下三千尺은 못될망정 그우렁차고 힘잇게 떠러저 흐러지는 瀑布의 힘이여 시언하고 痛快하기 더比할배업다

또한 이逍遙山中에는 觀音峰 藥水峰 伊峯峰等세峰이잇서 모두가 奇拔한 峰이여서 丹楓이 드는때에는 天下에 無比한 一大絶景을 꾸며노코야만다 이것을볼때 造物主의 그 創造的 能力을 讚嘆하게되며 이곳에 藥水터가 잇스니 이藥水를 마음것마시고

羅漢臺

逍遙山에 瀑, 上白雲臺等을 꼴고루 차저볼수잇스니 逍遙山을 探勝한맛은 예서 부러가 더욱 趣味스럽다 어산끝에 人家도十數戶잇는데 都市에서 豪華롭게 지내는 사람들 부럽지안케 團欒하게 家庭的으로 지내는것을보면 이生活이부러운感도업지안아새삼스러히난다 逍遙山은 그림에서도 차저볼수업는 宇宙의 神秘 大自然을 혼자 차지하고잇스니 이런곳을 차저보지안코 무엇을 어더보랴

◇路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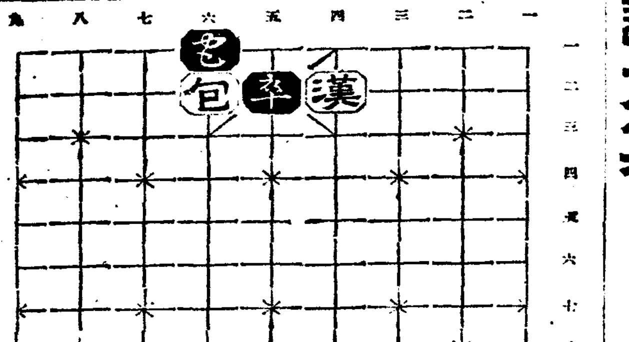
京城驛─(汽車)一時間二十分 下車 東豆川驛 徒步距離約八粁 所要時間片道 一時間半

車賃 京城驛에서 片道七十錢 淸凉里驛에서 片道六十五錢

◇博譜大集 2 【昨題解答】

[illegible]

(博譜係)



時事當識映畵界消息 沈淸傳梗槪映畵時評

空襲과避亂方法 李鍾模

事變과大衆經濟 李健赫

戰爭特輯號

國家와宣傳……徐椿

日支事變의展望 石山生

北支의經濟的地位……李白山

支那事變의將來 城北洞人

日支紛爭과英米의動向……韓普容

支那의國防勢力 韓一靑

日蘇大戰과兩國의作戰(米)T・F・베츠

戰爭과間諜의活躍……金秋葉

軍事機關스파이群……柳杏葉

死線을넘어 선그時節
滿洲曠野의追憶……徐椿
馬賊에게當한일……李克魯
十三年의苦學生活……桂貞植

戰爭小說 極東의戰雲 코렌브파

아버지의召集 더-프만

가을의슬픈印象
落葉群想……李軒求
絶望의그時절……安懷南
追憶되는過去……朱壽元
純情바쳤은春子……朴泰遠
가을의感傷……金晋燮
밤 송 이……李善熙

上海避亂娘子群座談會

漢城城壁巡禮……靑吾
기러기의情話……松雀

싸베-트의國防文學……又夢人

羅雲奎의生涯와藝術……徐光霽
佛法硏究會探訪記……小湖
朝鮮의五大寶劍……車相瓚
奇傑佟豆蘭……黎雲
朝鮮의名弓……申鼎言
音樂手帖……任東爀

十月의詩歌
동키호-테……卞榮晩
初秋外一篇……金珖燮
孤獨外一篇……尹崑崗
生活의꼬오기……安龍灣
咸州詩抄……白石
風景……張瑞彦
江岸國……馬鳴
개울……薛貞植
돌벽위……金達鎭

短篇小說 계살구……李孝石
短篇小說 祭退膳……金南天
長篇小說 돈……李箕永
短篇小說 열허진寶石……金裕貞
小說 無風地帶……咸太勳

내가監督한主演女優印象
絢情의女性金素英……安夕影
크로즈업한金蓮實孃……金幽影
淸雅한百合文藝峰孃……朴基采
金映玉孃의純朴性……申敬均
盧載信孃의片貌……安鍾和
박꼿과玄淳英……李圭煥

畵報 映畵及가을風景

朝光 十月號

定價四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振替京城五八七八

中部版

土地改良契를組織 天水畓一掃企圖

江華郡에서道費로約五割의補助를밧고 第一次로五個所着手

【江華】 전강화안에잇는 수천일천사백여만평은 모ー다 천수답(天水畓)으로서 순연히 자연의 혜택여하에 따라년사를 좌우하는바 그가운데에도 교동도(喬桐島)란정동산(蘭井東山)량리에 개재되여잇는 토지는 가장비옥하면서도 수전경영을못하고 매년 건파(乾播)X(一名乾稻)를 하야왓섯는바 당국으로는각방면을통하야 만흔 연구를거듭하야오던결과 란정토지개량조합(蘭井土地改良組合)을만들고 이곳에다 도비로써 일천이백삼십오원의 보조를주고 판내사십오지주에게 부담을 식히여 저수답(貯水畓)을만들게하며 또다시 란동토지개량조합(蘭東土地改良組合)을 동산리 안에 만들게하야 이곳에는 팔백사십사원의보조를주고 판내지주 삼십오인에게 남어지를 부담도록하리라는바 이로서 위선 교동도내에모범저수답이되리라하며 본도내에서는 가장 지리판계로는가 또는 운반판계로 보아도 제일우수하고 상당한평야를 갓고잇는 양사면(兩寺面)내 철산 덕하리(鐵山德下里)에 개재한흐른가해마다 유감을 보게되므로 이곳에도 덕천토지개량계(德泉土地改良契)를 조직케하고 도로부터 삼천오백오십원의 보조를주고 판내지주 이백오십인에게사천삼백삼십오원을 판출하야 사업에 착수하리라는바이곳에 몽리면적(蒙利面積)만 하드래도 칠십칠정보나된다하며 이것이실시된 이후에는 지주에게 순천한리익이 반당(反當)일석삼두으로이천구여안에서만의 총리익이 칠백구십여석으로 되여잇는바이 사업이 지난이십구일부 도산업부장으로부터의 내시된 사업으로파연 실시이후에는 막대한리익이 잇스리라하며 시행기간은 이가을안으로 착착진행을 보게되리라는바 흑지주간에는 수리조합체계에 무어이 생기지나안는가하야 궁금히 생각하는 지주들도 만타고한다

鐵原禮拜堂 奉獻式盛況

【鐵原】 철원감리교회(鐵原監理敎會)에서는 구월삼십일을 기하야 례배당(禮拜堂)봉헌식을 거행하얏는데 각만공서장을 비롯하야 일반유지가 다수참가하야 대성황을일우엇스며 동일밤에는 음악회까지 개최하고 축하를하엿다는바 금번 만허한 공사비 전여원의 대사를성공하얏다는점으로 보아 청원시 최선 인의 장래에 크힘을 어더리라한다

鐵原郡體育會 陸上競技大會

【鐵原】 철원군체육회(鐵原郡體育會)에서는 오는 십월일 철원공립보통학교 대운동장에서 륙상경기대회를 개최키로하엿다는바 일반군민은 시일을 잊지 다수 참여하기를 바란다고한다 하며 소리면에는 소리면 제한 궁하야 하기하야 조시송 ...

一山國防婦人會獻金

【一山】 고양군송포면일산국방부인회원일동은 열성을다하여 호메방문하야모인돈을 팔십오원육십전을 날로각지에응하한 황군위문금으로 국방부인회경성지방본부에헌납하엿다한다

愛國機"水原號"에 二萬五千圓獻金

水原各界有志의熱誠

【水原】 애국기수원호를 헌납할예정으로 향자에발기회를 수원군청회의실에서 열엇다는것은기위보도한바인데 그후이소문을들은 수원군내수민일동은 너도나도다투어 헌금을하면서 남보다 모저할일인데 지금시작하는것은 넘우느저진감이 업지안어잇스니하로바비 실현하자고 모든정성을 다하야 읍촌을불문하고 헌금할으로 발기회를연지 불과일주일도 못되여 지난구월말일까지에 벌서이만사천여원에 달하엿는데 우금까지헌금한이의씨명은 다음과갓다

一千五百圓雨汀面虎谷里鄭然郁 千圓華城劵番代表李演 九百圓日旺面李鳳來 八百圓 雨汀面宋榮晩 四百圓 水原邑 金汀境 三百圓 同 金周文 三百六十圓 台章面趙仁行 百七十圓鄉南面徐光俊 百五十圓本町徐廷烈 百五十圓城湖面車洙麟 百圓陰德面崔田際 百圓 裵仁淳 百圓半月面朴景春 百圓半月面陵直植 四十圓南昌町金名泰三 四十圓峰潭面曹晩煥 五十圓台章面林炳奎 千圓本町李光鉉 四百圓本町李□憲 二百圓陰德面 鄭萬寅 二百五十圓本町近藤泰吉 二百五十圓 尹泰仁 二百五十圓 加茂條四郞 二百五十圓長安町李敬儀 一百圓梅山町尹田甫 百五十圓第一社李光鉉 百五十圓台章面李哲求 百圓半月面朴基鎬 小計九千五百六十圓 累計金二萬四千七百六十圓

金額모아 지난이십팔일 면장홍승은(洪承殷)씨손을거쳐 수원으로보내엿는데 그금액은 다음과갓다

二十圓式裵仁淳 韓澤厚 十圓式朴昌根 高宅子 五圓式洪東祐外五人 三圓五十錢 洪忠厚四圓張吉鎬 三圓式洪洛祐外十人 二圓五十錢 朴三東外三人 二圓式李千穆外十九人 一圓八十錢安鎔熙 一圓三十錢洪遠厚 一圓五十錢式 李度男外十八人 一圓式七十四人 五十三圓三十五錢愛國婦人會陰德面分區代表者婦稿用

水原郡陰德面 國防獻金還至

【水原】 수원군음덕면(水原郡陰德面)내에 거주자들부터 국방헌

仁川商議役員會서 五大條項을決議

北支視察과見本市도

【仁川】 지나사변이 발발한이래에북지방면은 바야흐로 평정되여 건설을목표로 각종어부가점차로분망하야 지는이시기에 이에대한발전과번창을 목표로인천의상공업자들을보지와 북지시찰등에대하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역원회를개최하고 좌기각항을 결의하엿다한다

一、商品見本市에 八百圓補助를決定

一、北支視察에 補助를 與하야 出張케하기로決定

一、出入商物處理策으로 稅關構內倉庫擴張

一、海事法規統一을 朝鮮商議로부터 日本商議에提出케할것

支那事變映畵會 蘇萊分局主催로

【蘇萊】 지나사변이 발발한이래 일반인민에게 시국인식을 강조식히기위하야 순회강연을 개최항은일반이 주지하는 바어니와 본보조래분국에서도 독자위안겸시국인식을 철저히 하기위하야 소래소방조와 조선신문소사지국과 소래면공원으로 경성에엇든조선문화영화회에 지나사변영화

內金剛運動會 優勝은鐵道團

【內金剛】 지난이십구일 내금강주기대운동회를 말휘리(末輝里)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얏는데 대회는 대성황을 일우엇스며 우승은 철도단으로 도라갓다는바 선수씨명은 아래와가타고 한다 (寫眞向右로부터選手 中村、鄭道彬、李鳳春、崔星翊、朴永洛、劉永福 代表者李海植)

貿易躍進을目的코 北支에商圈擴充

仁川商議서對策協議

【仁川】 천진(天津)등지에 발서부터 회항선의출입이 빈번하야지기시작한이후 조선각지의 대공장에서는 발서 그상권(商圈)을확지에 확충식히고잇슴은 사실이 증명하는바와갓거니와 이와한가지 인천축항구내의 창고가협착한것을 늣기게되야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운수대책위원회를개최하고 좌기각항을 결의하얏다

一、米穀倉庫의 短期保管의實施

一、鐵道輸送力增大要望

一、京城貨物의 船車를通하야連絡取扱의促進

一、水仁線運輸에 港灣倉庫實施

一、穀物協會와 回漕業者間에連絡配給緩和

一、稅關構內에 貨物自動車를利用케할것

初場에賣占한穀物 龍塲엔高價賣却

溫陽溫泉市塲의奸商

【牙山】 충남아산온천(溫陽溫泉)시장(市塲)에는 수월전부터 간상배들이 성행하야 장날이되면 초장판이가지고오는 백미와잡곡등을 헐한값을주고 사서 불과한시간도못되여 백미한말에 오전내지십전의 가격을 올리어판매한다하며 흑배미가귀할때에는 매두에 십전내지이십전의 폭리를 탐한다고한다 재산이유여한사람들은 언제든지 돈이잇슴으로 초장(初場)에 양미를 매입함으로 별관계업다하려니와 일반노동자층과 발동생활을 하는사람들은 하시를불론하고 돈이오후에나 생기게됨으로 되먹이장사들이 호가(呼價)하는대로태고하가갑을주고 매입하게 됨으로일반세궁민에게 손해가 적지안타

忠北判任官增俸 百三名에六百八十圓

【淸州】 지난구월삼십일부로 충청북도판임관이하 직원일백삼사인에게 정기증봉을 하엿다는바 그총액은 륙백팔십원이라하며 명씨는 다음과갓다

一般判任官十一名 警察官九名 判任待遇職員二十一名 敎職員五十六名 道吏員十六名 雇託一名

유림의 봉하를바더 명년도에사십오만원의 조림비로 조림할러이라는데 전조선국유림 불하정보수는 오십만정보라하며 충청북도내 국유림의 이만팔천정보에 불하가결의정되면 단위신식이라고한다

國有林野買受

【淸州】 조선림업개발회사(朝鮮林業開發會社)에서는 전조선국

地方人事

▲國臨潤氏(揚州警察署)京畿道衛生課에서揚州人事次本報揚州支局來訪

虎列剌의威脅밧는 江華서도防疫陣

警察署員과記者團에

【江華】 제일회공할자예방주사서 행은 삼십일 강화경찰서에서 제일선에서는 사람에게 먼저 시행한바 당업에는 강화서원일동과 신문기자단인 목요회(木曜會)원일동에게 실시하얏슨바 일반에게는 약품이 도래하는 즉시로 이를 시행하리라고한다

乞兒에게 衣服을寄贈

姜錫源氏特志

【榮州】 경북영주읍(榮州邑)에엇는 강석원(姜錫源)씨는 영주군평은면(榮州郡平恩面)조생이로 지금부터 십년전에 영주읍으로옮겨와서 그지방 발전을위하야 시가지매립(市街地埋立)과 주구와 로 ...

건축업(建築業)을 전문으로하야 일반의주택난을 완화하는동시에 약간의 실익도 엇엇으나 어너련만은 그동안 궁민들의 처지를 고찰하야 공공사업에 공헌이만튼바 요지음 한절기에서 유내(內)로 몰려드는 거지떼들에 무려수십명에 달하나 그중의 어린거지들 일곱명은 자죠도 부모도 엇시 붉은 살령이로 도라단임으로 이를본 적기 강석원씨는 팔목상하의복(廣木上下)우선원회절기의 살명어를 지여입허서 되엇다 그러나 전기거지아히에게는 내가입힌 옷이라할물하지말라하엿스므로 부근 시민들은 흑이나 어린거지들이 절도나하지안엇는가하야 부잡어 무른바 그제야 강씨의 숨은덕이 세상에 나타나게되여 일반은 새의 활동(活動)에 머거에 칭송이 자자하다 하며 이번 일에 감상이 ...

유공(軍馬飼育料)로 매입하리라는바 그여양이 제엽(製叺)제라한바 그여양이 제엽(製叺)으로 근근연명하는 극빈자들에게 멋처려고한다

八萬키로의 軍用藁買入

【淸州】 청주군내에서만 사십만커로란는 청주군농산조합(淸州郡農産藁)의 운반지일에 해당하는 다량의진(藁)을 군마사

楊州公普校運動會

【楊州】 양주공립보통학교(楊州公普校) 추기대운동회는 삼일동교대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여 매일운동연습에 열중한다는 데 금번은특히 시국에대한 경기종목이등분하며 동교후원회의 열렬한후원으로 례년에업는 대성황을 이루리라한다

正租共販斡旋 石橋金組支所서

【安城】 안협금융조합 석교지소(安峽金融組合石橋支所)에서는조합원들의 희망에따라 벼공동판매를 알선하는동시에 재열회에칠천가마니(叺)가량된다는바 그성이 심히우량할것을 예측한다는바 압으로 더만흔 리용과 유의를바기를 바란다고한다

蘇萊公普校運動會

【蘇萊】 부천군소래공립보통학교(富川郡蘇萊公普校)에서는 추계대운동회를 지난이십육일에 개최하려하엿드바 당일은 천후의관계로 연기하야 그이일인 이십칠일 오전구시부터 동교운동장에서 개최하엿는데 처음부터끗까지 원기왕성하게 예정한바와가티 운동경기를 진행하엿다는데 관중은 무려천여명에달하야 예기이상의 대성황을 이루고 동오후오시에 무사폐회하엿다한다

金浦自動車의 運轉時間改正

【金浦】 김포운수주식회사(金浦運輸株式會社)에서는 금번일반승객에게편의를 주기위하야 지난일일부터 판내각선에대한 자동차운전시간을 아래와가티 전부개정하엿다한다

改正

京城行 午前十時 午後一時 午後三時 午後五時

江華行 午前十時三十分 午後二時三十分 午後四時三十分

富平行 午前九時三十分 午後十一時五十分 午後六時

陽谷行 午前十時五十分 午後五時

花冠 (65)

長篇小說

李泰俊 作 / 金奎澤 畵

생각만혼가을(十八)

『내가 아우…』

하고 집이형님은 서어머니 압에 다라나버린다.

『아니 숙석어구 쌀은 어떠나 내허군 못 살겠? 재집 때한번 남의집에 드리겟다 못사는게 별신여진』

하고 역시 어머니는 남성보후의 인심에서 대답하신다.

『참 어머닌 떠허긴 허유』

『따허지 안흐문, 샤내 서미가 제 서미에 맛지 안는다구그럼 안 살어야허나?』

『누가 어디그런거 말유? 동서오빤 서미가 서어썩하지게 그런데 저편은 퍽 깐죽깐죽 해 뵈니깐 그래두 괜찬캣냐 말이지…』

『왜 서집이 깐깐스러겟던?』

『좀 동동진 못할거 거런』

『거 동서이건 아주 마친이구나』

람끼리보다 반대되는 사람끼리가 조화것은 동무의 상식으로도 어려운것안케 어을 결론이겟스나 문제는 한거를 더 나아가 연든것이엿다。 여자다운 여자와 남자다운 남자 사이에도 서로 성격상 공통점이 만흔자람끼리와 공통점이 적거나 아조업는 사람끼리가잇슬수잇는것이다。 성격상 공통점이 엇든사람끼리는 처대나 사상이나 이상이 가를수잇는것이요 성격상공통점이 전혀 업는 사람끼리는취미나사상이나 그들의 이상이 모두 다른것이기 쉬울것이다。 취미가 다르고 사상이 충돌되고이상이 어서 따라다면 거기에용합이 잇슬수 업는것이다。 부얼어 생기던지 그러치 안흐면어느 한편의 취미나 사상이나이상은 다른 한편의 그것을살리기 위해 희생되여야할것이다。 『어느』 한편이던지 희생? 자기

『왜요? 서미가 서른달란야만 허우?』

『그럼』

『왜?』

『아, 색시마저 똑가리 얌무진테 어서 희견거만허구 손이 해펴보렴? 살림사리가 되겟나?』

『의두 그러탄다 여잔 여자답구 사넨 사내다워야 재미가 잇지 둘이 다 사내갓다던지 둘이다 꽁새원여문 재며가 잇나……』

『살림 때문에……』

『누가 여자가 여자거지 안구 남자가 남자갓재 안흐것 말인가?』

동옥은 어머니의 말끗이 작고 자기가 삼으러는 문제에서 벗으러저 나감에 짜증이 난다。

『그래 뭘좋을 먹엇니?』

『양식』

『양요리?』

『네』

『건 한상에 재려내오는게 아니구 먹는대루 작구 새거나오더구나?』

이래서, 동옥은 그만 자기가 알고십던, 배우자격의 성격문제는 궁금한채 덮어둔지고 어머니의 말끗에만 추일하고말앗다。

무론, 동옥도 하나는 남성이요 하나는 여성이래서 문제엿다。 여자가 남자다워서 남편하고 서로이 갓흐던지 남자가 여자다워서 안해와 성질이 가름것이라면 무론, 그것은 가른사람끼리

취며, 자기의 이상을 죽이며까지 여성을 사랑할수 잇슬가? 동석오빠의 취미나 어상은 박연쥐에 겨까운것이다。

그 올케될어는 엄론 보아도 배입편에 거까울게 때 개인주의적인 성격이다。 서로 사쾌은 엇트 하더라도 취미나 이상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것은 뻔ー하다。 더구나 그분은 메슬학교에 다니던 분이 다。 옷감 하나를 사도 그런데 서 하나를 사도 끌라도 접석오빠는 벽라어 하나 끌라잇술게다 동수는 짝루 판서어 살줌 모른다 모자를 사도아무벗치나 갓만하고 머리에 맛기만 하면 사는 서면데!』

한번은 동석오빠와 백화점에갓다가 동옥도 양말을 사고 동석도 양말을 삿다。

『오빠! 아、거든갑시면 빗석건 좀 골라 사구려?』

『일부러 난 고런데나 신경 어 빨랭이 사랑처럼 알미운건 업더라』

하였더니

『그런 오빠가 성격까지 그러케 야무지구 날카롭구 더구나 미술가로서인 그이와 모든게 용합이 될까?』

동옥은 싫어시 흥미가 업지아랑 자기가 궁금한 그와자간의 성격문제를 어둠에 곳실연구식혀 보려는것이 이번진다。

長湖院

編物講習會

期日 十月四日早日十一日까지

場所 長湖院幼稚園

講師責 一師先生

主催 三信堂藥院

後援 朝鮮日報長湖院支局

住宅難의解决

月賦償還

月賦

大略紹介하면

一、住宅難京城의大福音 全額의 二割五分乃至四割을가지고 家屋賃貸의契約이成立되는即時 住宅은契約者의 名義로登記되며 月貰보다 低廉한 價格을 每月支拂함으로 五年以上 十年以內에 完全한 自己所有가됨

二、合理的인構造와施設 文化的住宅에서부터 給作되여야되다 住宅의構造 水道、電氣、交通의 完備는 더말할수업고 特히 自動車는 各戶門前까지 머므를수잇스며 電車나려서는 五分以內면 當到할수잇슴

三、先約者의勝利 新築家屋四百戶가 旣定된戶數이온대 벌서 半數以上의契約이 成立되고 續續契約이 殺到中임으로 希望하시는분은 即時問議하야주시요

電話(龍山)一七〇八番

京城阿峴町莊在所後方 孔德町 電車停留所 下車

孔德町雙龍台住宅建築事務所

我家

開運의好機 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 만흔 대사업가 名士들의 판상계의 대호평을 밧는 신자입니다 前途方針에 對하야 혜매는분、허공을 압뎝하고 大成功을하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株式、期米、鑛山業으로큰利益을 어드라는분、당면한 夫婦間의 갈등、다로한損害를 당하는분、平生의길흉、訴訟의勝敗等어떠한問題든지 聖龍先生은 明確하게 적확히判斷하야 開運成功의 길을 보여주는 今時에 觀相보시고운수가 열리운분이 만흡니다 料金은 普通觀相에一圓이오 京城本町二丁目二〇六(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 生年月日과 面目의 要件을 자세히적으시고 사진잇스면더욱명확합니다 (사진잇스면 回答料送呈)

【생선룡성】

各眼科病院 處方眼鏡責任調製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赤十字病院眼科 龍山鐵道病院眼科 龍山陸軍病院 江原眼科醫院 金井眼科醫院 荒川眼科醫院 仁川岩永醫院

全鮮各道私立病院眼科御指定

京城帝國大學御用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二三七五 振京一二一九

△眼鏡・雙眼鏡カタログ送呈 (要三錢)

山葉オルガン

兒童을爲하야! 特허便利한月賦販賣도합니다

カタログ 月賦規定을 申込해주십시요

日本樂器會社

京城府本町一丁目 電話本局③四八五

全國에特約店 잇습니다

一日부터 七日까지

冬物持越品 處分大廉賣市

勿驚! 勿失! 此勇斷的大奉仕陣容!!

冬節持越在庫品을 掃蕩키爲하야 三割、四割乃至半價以下의破格으로 提供하옵는大廉賣市! 百聞不如一見。爲先光覽仰邀

提供品一例

兒童세ー타 / 同자켓트 / 同毛콤비 / 柄세ー라ー쓰 / 네와이샤쓰 / 兒童折帽子 / 中折帽子 / 帽子 — 三割以上

兒童레ー겐 / 同콤비야 / 綿毛리라 / 毛首帽 / 柄세ー라 / 兒童洋帽 / 兒童手袋 — 三割以上

毛絲스웨ー타 / 綿매리야스 / 兒童帽子 / 手袋 / 洋襪 / 婦人襪 / 넥타이 / 其他山積 — 五割以上

季節洋品各種陳列

◇新型핸드빽陳列 ◇新柄미라ー·세ー타陳列

◇流行쇼ー르陳列 ◇柄와이샤쓰·넥타이陳列

◇新柄洋襪陳列 ◇國産優秀中折帽陳列

新六層 特賣場

各層主要賣出案內

粧品丹頂化粧品賣出 一層
食料品附時計特價賣出 二層
菓子讀書特價賣出 新二層
陶器毛物附毛布特價賣出 新三層
日用雜貨特價賣出 東三層
新家庭用品賣出 東四層
男女兒服特價賣出 新五層
婦人靴特價賣出 新六層
하이킹 用品賣出

京城 和信

電話代表(光)二八〇〇

朝鮮米一回豫想 空前大豐作發表

二千四百七十五萬二千餘石

昭和五年以上豐年

(八月十五日現在)【農林局發表】本年의 稻作은 用水가 潤澤하고 天候가 適順하얏슴으로 一般으로 順調인 生育을하야 八月十五日現在에잇서서 大體良好한狀況이엇고 其後도 天候가 順調이엇슴으로 出穗稔實共히 佳良하얏스며 旱水害、病蟲害等의 被害도 적으므로 大豐作이豫想된다 이제 調査成績을보면 作付反別은 水稻百六十四萬五千五十五町八反步로서 前年에 比하야 水稻三萬四千二百十三町九反步、合計百六十四萬五千八百四十一町九反步、陸稻三萬七千六百七十四町一反步(二分四厘)增、陸稻一千百四十七町一反步(三分五厘)增、合計三萬八千八百廿一町二反步(二分四厘)의 增加를示하얏고 收穫高는 水稻二千四百四十一萬七千二百三石 陸稻卅三萬四千八百卅九石 合計 二千四百七十五萬二千四十二石으로 前年實收高에比하야 水稻五百廿五萬二千九百十七石(二割七分四厘)增、陸稻八萬八千三百六十二石(三割七分五厘)增、合計五百卅四萬一千二百七十九石(二割七分四厘)의增加가豫想된다 이제 參考키爲하야 本年의豫想高를 大豐作이엇던 昭和五年의實收高二千四百十三萬三千百二十八石(舊調査의數字一千九百十八萬六百七十七石에 其二割五分八厘二毛를 加算한것)과 比較하면六十一萬八千九百十四石(二分五厘)의增加이다

米作付反別及豫想收穫高累年對照表(▲減)

	作付反別 水稻(町)	陸稻(町)	計(町)	收穫高 水稻(石)	陸稻(石)	計(石)
昭和 七年	一、六〇五、八〇一	三七、六八九	一、六四三、四九〇	一六、〇八一、二三九	二六四、五六六	一六、三四五、八〇五
昭和 八年	一、六五九、四三一	三八、〇五二	一、六九七、四八三	一七、八九四、一七七	二六八、四四〇	一八、一九三、一七〇
昭和 九年	一、六七四、三七一	三七、五九二	一、七一二、九四九	一六、四七一、一〇四	二四六、一三四	一六、七一七、一三八
昭和 十年	一、六五六、一三九	三八、四〇四	一、六九四、五四三	一七、六六二、八六六	二七二、八〇一	一七、八八四、六六九
昭和十一年	一、五八八、一六七	三三、一六六	一、六二一、三三四	一九、一六四、二八六	二三六、四七七	一九、四一〇、七六三
昭和十二年(豫想)	一、六〇五、八〇二	三四、三三九	一、六四〇、一五八	二四、四一七、二〇三	三三四、八三九	二四、七五二、〇四二
昭和十二年豫想과前年과에增減	一七、六三四	一、一四七	一八、八二一	五、二五二、九一七	八八、三六二	五、三四一、二七九
同上 比率	〇割一分四厘	〇割三分五厘	〇割一分四厘	二割七分四厘	三割七分四厘	二割七分五厘

備考 一、昭和十一年以降의 作付反別은 畦畔面積을除하고 實際作付한面積으로함
二、昭和十一年以降의收穫高는 新調査方法에依함

秋收期放賣愼戒

米價를崩落식히지말나

◇農林局長談

別途本年産米의 第一回豫想收穫高는 二千四百七十五萬二千四十二石으로 發表되엇는데 이며 一般이 豫想하던배와가티 大豐作인것이 數字的으로 具現되어 同慶에 不堪한다

現下의重大時局에 際會하야如斯한 大豐作을보것은 眞實로天佑라 稱할수잇는것으로 萬邦無比의 我國體에대한 神明의加護라 感激함을 禁치안흘수업다

戰時體制下에잇는 現在의時局은 모든物資의生産增加를 要求하고잇는데 就中米穀은 軍需品으로서 其供給의 確保가必要할뿐아니라 主要食糧으로서 國民生活安定上甚히重要한 自給自足이 必要한것은 歐洲大戰當時 獨乙의 實例에徵하야도 明白하다 特히今回의 事變에잇서서는 軍用物資의 供給이 地理的으로보아朝鮮이 가장有利한地位로 이未曾有의 大豐作으로半島에 負擔한資務를 다하는데잇서理想的인 一方

半島農家經濟로보면 內外地를通하야 豐作이 豫想되어不拘코先物米價는 强含인 現狀임으로써 此際 싹터어시 放賣를急하야 米價를 崩落케함은 愼戒할일이다 政府에서도 米穀統制法을强化하야 米穀自治管理法의 堅障으로써하고 更히이에加하야 戰時體制下의 要求에依하야 米穀應急措置法이 第七十二議會를通過하야 季節調節의買上外에 必要한米의買上、貯藏을할수잇는方途를開하고 萬全을期코잇다 更히 朝鮮에서는 低利資金의供給에依하야 一般으로 米穀의貯藏을獎勵하는外에 農業倉庫、籾倉庫及米穀統制組合倉庫等에 貯藏케하며 生産者又는地主所有의籾에對하야서는 特히 貯藏獎勵金을交付케되어잇는데 此等助成施設을 利用치안는者는업지라도 어대까지 非常時와의認識을 깁게하야 될수잇는대로 貯藏하고 秋收期放賣를 愼戒키를바란다

不滿에 表明되는狀勢인바 各道의最低率을보면 如左하다

◇京畿道最低 京城、仁川一等地 鮮銀 六百九十萬圓

朝鮮對外貿易 入越累計半減

輸出入額은大躍進

九月中朝鮮의 對外國貿易은輸出入三千三十九萬二千圓、輸入八百四十六萬八千圓、入超七萬五千圓이엿는데 一月以降의累計를보면輸出은 八千四百二十九萬九千圓、輸入一億二千三百七十萬九千圓、入超 三千九百四十一萬圓으로서 前年同期에比하면 輸出은 三千三百三十五萬六千圓、輸入은一千五百四十二萬九千圓、輸出入合計四千八百七十九萬六千圓의 各增加로서 入超는一千七百九十二萬七千圓이減少되어 貿易躍進을示하얏다 이제 一月以降累計概況을보면如左하다

輸出	今年 千圓	前年 千圓	增減(▲) 千圓
朝鮮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內地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外國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入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情에不合한 火保料率

◇…是正急務論擡頭

朝鮮內의火保料問題는 昭和八年 値上에際하야 大紛糾가잇슨以來 各社가모든關心이적어진모양이엇스나 最近에 京城을中心으로 料率不公平과 料率不當을 糾彈하는소리가노파젓고 特히新興住宅地方面의 取扱不公平은露骨的으로 火保會社의自省을促할要望이強하다

其一例로서 京城府內外에就하야보면 府內의一等地는 三坂通、南大門、光化門、南大門一、二丁目이오 其最低는 百圓에第一級十錢이오 其最低는 百圓에第一級十錢、府外地方은 郊外地帶인 靑坡町、明治町、往十里외가든것은 最低率은四十錢이오 第四級으로하면 府內의一等地四十五錢에對하야 上述地帶는 一圓十錢이라는 狀況이다 其中 櫻岡과가든것은 市內取扱으로 比較的조흐나 內서도 不合理한 取扱이不少하다

이것은 그一例에不過하나 府內서도 不合理한 取扱이不少하야 會社間의制限等자매에 火保料率의 合理的是正이要望되고잇다 이에 明朗한 取扱으로 低廉한 保險料率을 施行할것이 各方面으로부터 指摘되고잇다

火保率은 全朝鮮的으로 適用되고잇는데 地方으로부터 深刻한 要望이잇서 各地의 不平이 表面化하고잇다

週間大勢

株式

證券界나 商品界가 一向沈滯한 動向을보히지안엇고 다 그는 事變의全面的進展을보고엇는反面에 國際關係의 複雜化 卽聯盟의十三國委員會의 支那提議에對한 制裁決議、米國의 提案에對한 實意表明、英米兩國을 筆頭로百貨排斥運動擴頭、蘇聯駐支大使의 急速歸國에伴한 日蘇關係의惡化等으로市場人氣는 極度로不安에 빠드리고잇스며 資金調整法及 綿絲價格統制問題로 紡績株는 一層暗澹한 感을하고잇는터이다 鐘新과如한 은 客月二十日의彼岸入에 二百四十七圓五十錢、東新은 百四十七圓의 高價를示하고 其後는崩落을 續하야二十日은 鐘新一百

二十八圓四十錢、東新百四十一圓八十錢에까지 떠러젓다가 週末에는 反撥되엇는데大幅高下의點으로보아서 鐘新은 投機의 地位를 依然保持하얏고 今週의波瀾은 激甚하얏스나 賣方側은事變의 好轉과 金融緩和調「인프레」等을 好材로잡고 弱氣는國際關係를 浮揚하야 民實方針을 不變코잇다

期米

堂島九月限의 爆發納會는 全혀賣方의 大遠算이엇다 이는 端境期需給을 넘우樂觀하고 新米豊作을 過大評價한 結果며 政府의 需給觀만을 信念하고 事變關係에 依한配給機關에關한 認識이 不足하엿든것이다

新市十二限은 阪地十一丁下報東京一丁上報 當地同期發會인데 어는 要컨대 적어도 二十丁內外의 下鞘로 發會될期米가 漸下

綿絲

米綿은 어떠튼下支의 感이잇서 價位를보든가、九仙的이든모양이다。漸次 棉價라고보든 모양이다。漸次棉花의 實需買가 許可된이로 實需賣割에關하야서는 大體 此邊이底示하고잇스며、最近低價의 綿入荷狀況으로 落潮는 不變하야 先約은 三十圓臺를 깨뜨렷다。一方 어는 原棉輸入과「인플레」 期待로 强合勢를 豫想하야 實需

生絲

新規材料를 待하고잇는 現狀으로 投機買는 全혀 萎縮되어 買方의 中心勢力이 衰殘한후에目前的으로는 晩秋蠶의 出廻 可히 實需賣의 重壓이엇다、그러고 强氣가 가장 期待하든 米國의 秋景氣는 期待薄인 우에 日貨排斥氣運이 濃厚하야 何는 國內의 需要不振과 어울러 人氣를 極度로 惡化하고잇는 現狀이다 目前 念願落의 憂慮가업다고 하드라도 大勢는 當分先

人絹

絹絲의 先物이三十圓臺를 깨트리고 대중은 未免하리라고한다 반壓은 大體玉低書 엇슴으로 下押을 續하고 大衆側의 氣迷는 深刻하야 月의 物價는 波瀾이 甚하고 엇스며 國內需要에 잇서서도入月의 物價는 受渡가問題가되리라 九月物은 依然遲滯되야 現在約定高의 二、三割까지는 進涉을 보지못하고 月末月初에 亘하야 相當히 進涉되다하야도 四、五割程度에 不過하리라한다 地方織業者도 金融的으로 極度로窮迫하고잇스며 絲屋과 特約店이 亦是金融難에陷하여잇는 모양임으로 內需도展開難이며 輸出도 一層狀態인만큼 目前低迷를 持續할수밧게 업스리라는 觀測이 有力한모양이다

銀行의自己資金 低資와同額準備

金利는未定이나例年보다高率

米資總額六千萬圓

今年度米穀資金問題에 關하야 二日午前十一時부터 農林、財務兩局과 鮮銀、殖銀、東拓各關係者가 農林局長室에 參集하야協議한結果 農倉、米倉、籾倉庫及統制組合倉庫 入庫米에 對하야 融通할 自己資金은 最低限度大藏省預金部로부터의 低利資金과 同額을 準備키로 決定하고 午後零時半에 散會하얏다

預金部低利資金은 아즉正式으로 決定되지안엇스나 最低三千萬圓은 確實視되므로 合計六千萬圓以上이 今秋의 米穀資金으로서 放出케되리라한다

金利는 今日協議에서는 決定되지못하얏는데 金融情勢로보아到底히 例年과가티 低資와同率로는 할수업다는點에 對하야서는 農林、財務兩當局도 諒解하얏슴으로 今後關係者間에 懇談한後

決定케되엇다

低利資金은 大略 前年과가티 四分八厘 日步一錢三厘로보며는데 自己資金은 五分乃至五分二厘程度로보인다 資金配定도 低資가未決定임으로 亦是後日로밀게되엇스나 大體

殖銀 一千三百二十萬圓
東拓 六百九十萬圓
金組 三百萬圓

程度로되리라한다

殖産助成追加

朝鮮殖産助成財團의 十二年度助成事業은 濟州島試驗風車及朝鮮布硏究에對한外에 今回更히左記追加助成키로 決定하얏다

▲京畿 高陽郡農會 京城白菜採種普及 ▲忠北 草師石器組合 調査後에決定 ▲忠南 道水産會 海苔種苗場設置 ▲全北 全州産業組合 栗子及黃麻增收良種會 ▲慶北 主催者未定 의나마 假相作調査後에決定 ▲平南 成川産業組合 貧困利用에依한銀波細製織講習會 ▲慶南 河東竹林組合 講習會 ▲平北 新義州第二產業組合 本工藝術講習會 ▲江原 淮陽郡麻布生産組合 在來麻布新用途開發施設 ▲江原 金剛山蠶業會 土産品改良增產施設 ▲咸南 私立明淸普通學校 뿌라시工業講習會 ▲咸北 淸山灣漁業組合 鹽藏殖

鹽粕運賃 三割引上

◇忠北 淸州最低二十五錢
◇忠南 大田最低二十錢
◇全北 群山、全州二十二錢
◇全南 木浦、光州三十錢
◇慶北 大邱二十二錢
◇慶南 馬山二十二錢、釜山三十錢
◇黃海 海州三十五錢
◇平南 平壤、鎭南浦三十錢
◇平北 新義州三十錢
◇江原 春川、鐵原二十五錢、原州四十錢
◇咸南 元山三十五錢
◇咸北 淸津會寧三十五錢、羅南四十五錢

一般百圓에十八錢

鹽粕運賃改訂을 油脂關係業者와의 交涉이 엇되어 結果를 如左히 一任키로決定한 結果 對策으로 現在 火保會社로서는現狀維持에 努力하얏스나 昭和八年度改訂後의 事情變化도잇서서 地方의 實情으로보아 再檢討가必要하다한다

商船天津航路 釜山寄港陳情

一、一百如左히 決定하얏다
一、現行運賃(平均八十一錢)보다 三割(二十二錢)引上인 一圓四錢으로改訂
二、十月一日부터實施

事變勃發以來 北支貿易의 飛躍에 一釜山商議에서는 釜山商議의 全國的運動 立場으로서 釜山商議 大阪商船의 京城支店長 松田寬氏를 訪問하고 同社의 會長 天津航路의 釜山寄港을 陳情하얏스며 또 釜山商議에 對하야서는 釜山을 基點으로한 天津航路의 開設을 陳情하얏다

朝鮮內의 內地移入金 移出量은 海運에서도 各道의 朝鮮內에서도 增大에 加一한다는 目下客年度의 事變關係에 對하야 그것은 今後 數量이 가리라 하면 一年百八十萬圓가 엇스리라하야 어느 方面으로 이 바 나 不足을 늘이지 않을 것 같다 注目된다한다

京城組合銀行 送金取立手數料 自十日改訂實施

京城組合銀行에서는 今番送金手數料 取立手數料를 行하는데 其中送金取立手數料는 大體의 協定에 依하야 十月十日부터 實施하게되엇스나 從來보다 一割이上 引上되리라

十八日銀行臨休

來十八日은 京城神社大祭日임으로 京城組合銀行은 祝意를 表하고 臨時休業키로 되엇다 組合銀行 이에準하리라는데 朝鮮取引所는 前場만 立會하고 後場은 休會할豫定이라한다

天津見本市開催

朝鮮貿易協會主催의 北支見本市의 商品은 京城發 天津에 向한 早隆丸으로 豫定대로 三十日天津에 着하야 三日부터 四日間 朝鮮民會幼稚園에서 見本市를 開催키로되엇는데 大量商品은 軍部에서 引受하고 其他는 處分處要 決定하얏다

貯銀異動

朝鮮貯蓄銀行에서는 一日附로서 如左한 異動을 行하얏다

調査役 木村 達彦
咸新義州支店開設準備委員 加納 武男
咸興支店長代理 監査課長代理 堀內富次郎
仁川支店長 前島 彦藏
本店外務課長代理

經濟界消息

○中野朝鮮運送社長辭任=朝鮮運送은 十一月末下期定時總會를 開할터인데 同總會에는 社長中野金次郎氏辭任에伴한 補選이當然行할것이다 後任社長에는 日本通運新社長 國澤新兵衛氏 村上新副社長의 兼任說이잇스나 結局社長은 當分不置하고 專務制로 하리라고보인다

朝鮮電力事業開始

南朝鮮地方統一電源

南朝鮮地方의 統一電源인 朝鮮電力會社의 寧越火力發電所中 二萬五千키로 發電設備一臺와同發電所로부터 廣州를 經由하야 大邱에 至하는 十五萬四千볼트 送電線路及 同線路로부터 光州에서 分離하야 大田에 至하는十五萬四千볼트의 大田送電線路建設工事는 順調로 進陟되어 工事落成을보고 遞信局으로부터 檢査官을 派遣하야 檢査中이든바 九月三十日附로써工作物使用認可指令이 엇섯슴으로 同會社에서는 十月一日 施政記念日을 卜하야 事業을 開始하얏다 南朝鮮地方은 本年三月十日 配電事業의 大合同을 完成한터인데 本會社事業開始에 依하야 全南地方을除하고 全地域의電源은 寧越火力發電所에 統一되엇스므로 發電 送電 配電의 三部門에亘하야 統制完成을보게 되것이다

靑島牛杜絶 朝鮮肉移出

事變勃發以來 年三百萬斤에達하는 靑島牛肉의 輸入이 杜絶되어 船便關係로 南米方面으로부터 一年三百五十萬斤의 輸入이 減少하얏슴으로 農林省에서는 그對策으로서 北海道에서 現在屠殺하고잇는 數量을 一個年間 肥育하야 一百卅萬斤의 牛肉增産을 圖하고 日本內地市場의 緩和에 資케되엇는데 一方

苧麻增産計畫

苧麻는 全國의 需要四十二三萬貫에 對하야 國內生産은 겨우六萬貫內外에 不過하고 殘餘는海外로부터 輸入되고 그大部分은 子江側으로부터 輸入코잇는데 事變때문에 杜絶되었슴으로 農林省은 第一次計畫으로서 內地서 四百萬斤(六萬貫)을 增産 키로되엇고 總督府에서도 如何 呼應하야 十個年百八十萬斤(一萬七千貫)增産計畫을樹立하고 豫算이通過되면 明年度부터 實施키로되엇다 計畫의內容은

一、計畫年限=十個年
一、植付面積=每年六百町步식十個年에 六千町步에達케함
一、收穫高=計畫完成年度에百八十萬斤豫定
一、獎勵地域=南朝鮮地方등이다 그리고 苧麻의 需要는 年年增加되어 輸入量도 如左히 逐年增加되엇다(單位千斤)

昭和五年	一六三
六年	一六三
七年	一八〇
八年	一八三
九年	二一七
十年	三二二
十一年	三五九

今日의時評 二日

◆米 (單位石)
仁川期米先限 二六 三〇 不變
大阪期米先限 三五〇 一〇低
京城正米(白一等) 三〇五 三〇
米價(仁川)一等 二五〇
正租(仁川)一等
一斤 一〇(四斗)

◆株 (單位十錢)
鐘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新東 [illegible]

◆商品
綿絲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寸鐵

○ 投資在鮮日人에民도 日本人國의 外에도 東京支部長에 斷任 인가 利權之 三十二圓臺 回復하얏다 아무리 英米를 비롯한 列國의 日貨排斥氣運이 濃厚하다할지라도 强氣筋은 戰局의 決定的勝利와 金融緩和의 解綱에 다시上向케 될모양이다

○ 朝鮮米第一回收穫豫想은 二千四百七十五萬石으로 未曾有의大豐

○ 秋收期 放穀으로 米價를 떨어트리지말나는 것은 農林局長談

○ 放穀지 안흘수 업는 農村事情은 딱한노릇 爲政當局의 一層救濟策은 엇더할가

○ 火災保險料率不公平、過高의 批難이 不遠에 表面化하다고

○ 往年가든社會問題는 어찌겟지만 再檢討의 必要는 잇슬일

株式 押目買로 反撥

今日의 市勢 (二日)

前場反撥

今朝阪地의 東新 四十錢高인 百四十三圓 三十錢 鐘新一圓六十錢高인 一百二十九圓八十錢 初付를入하야 當地는 一休後東新百四十三圓九十錢、鐘新二百三十一圓、朝新三十圓二十錢、日産六十七圓六十錢으로 寄付後 押目待出動으로 上騰東新 百四十五圓二十錢에 갓다가 四圓九十錢、鐘新은 一百三十二圓 五十錢에 갓다가 一圓四十錢、大新은 八十圓九十錢、朝新은三十圓五十錢、日産은 六十七圓八十錢으로 反撥大引어고 後場은 例休

다시上向

戰局의好轉에도 不拘하고 國際關係의 惡材料續出에 伴하야 市場人氣의 惡化를보아 다락을 演하엿든이라 今朝는 그推移가 注目되는바 阪地의 一齊高를 入하야 當地도押目買人氣로 刺戟하야 買物續出로 東新은 百四十四圓臺、鐘新은 二百

市場六感

◆株… 日本의 爆擊에 對하야 聯盟은 斜彈決議를 하고 英米도 反日感情 高吹◆이에 對하야 外務省은 그不公正한 非難을 排擊하고 一路邁進을 決意◆다시 日本品의 市場獲得에 努力할 方針이므로 良品廉價의 日本品은 不買運動을 넘어 進出?◆一方 戰局의 好轉으로 日貨不買를 녹이히 興合할수잇다고 資過反動氣分擡頭◆今朝는 警戒裡에도 明朗化氣分濃厚 그推移가 注目되는바 果如何

◆米… 日本內地米作 第一次豫想은 昨年同期에比하야 大增收한모양이다 그리고 낫게 예는何等의影響이업시 小落을示한後反히 底强◆朝鮮米一回豫想은 場立後 發表되엇는데 二千四百七十五萬二千四十二石으로 空前의 大豐作發表▲豐作은 勿論 弱材料할수잇지만은 諸物價高로 보아서 米價의 重壓落은 到底히 無望◆그래서 一時 日本內地及朝鮮 豐滿의 米作을 合하야 一億石의 說이잇섯스나 市勢는 昨年度의 低價▲그러다가 지못하엿다 ▲그러다가 目前 段의豐饒被害가 예상보다만큼적어도 二百萬石減收는 되엿슬것이다 豐作發表를 겨더러보 겟다(寫眞)

統制와證券界

證券市場은 모든業者가 代表하는 意味에서 政府도 이에對하야는 相當히 苦心하고잇는모양이다 例의 資金調整法에 있어서는 各方面에 摩擦이 生하야 爲先第一로 賣買業者가 悲鳴을 울리고 엇고 다음은 生絲、絹絲業者이며 其他도그러하다 그러나 證券界는 財界의 『바로메ー터』로 此際 反動이적게하기爲하야 周到한 注意를 하고잇는 모양이나 市勢는 호조이는 것이라고 모양이러 漲騰되리라는 萬難을 排하고 살기 爲하야 比較的 相當한 影響이 잇섯다고 볼수잇다 그 大市勢에 퍼지지 안흠은 桂梏이 라고보는 傾向이 잇다

國債 環境良好 昂騰

【東京電話同盟】 短資는 더욱强含이엇스나 環境의 良好로 漸次 實需買를 誘致하고 잇다 繼續上向의 步調를 示하야 五錢乃至 十五錢가량 上伸 佛貨만이 價格로 騰勢를 押하야 一息狀態이며 米貨는 大分半 五分半共히 一圓가량 昂騰이다

▲第二回分 (四二、〇)▲二回四分一〇二、五 ▲二回四分一〇二、五〇 ▲二十二年物 九一、二〇 十一年物 九九、二〇 ▲米貨四分 九五、四〇

豐作과物價高

朝鮮米는 空前의大豐作이라고 一回豫想이 發表되엇는데 一般物價는 豐作을 豫想하면서 에 엇더한 影響을 가지고 잇는가 豐作은 주는 그러나 目前에 豐作에 인하야 米價의 지나침 落下는 업슬 것이라는 모양이다 비록 作柄이 良好하다하나 大勢 可히 엇더한 影響이 잇슬 것인가 물가고의 時局下에서 米價는 相當한 高値를 維持할것이라 하는 바 一般物價高의 牽制로 一般物價高의 率

제

過去 昭和五年度의 大豐作이 阪地十三圓臺 當地十一圓臺의 大暴落을 告하엿슴에는 極度로 惡化한 關係이엇스며 大正八年歐洲戰亂當時의 地五十二圓臺 當地五十一圓臺의 破天荒의 高價를 示하엿슴은 其時의 大豐作이엇슴에도 『인플레』의 好景氣時代이엇는 關係이다 그러므로 言必稱 今年의 豐作을 云謂하는 物價高와 豐作 亦是 以上과 同一한 關係인바 一般物價의 騰貴로보아서 豐作과의 正反對의 市勢가 展開되기가 十常八九일것가다

期米 保合裡에 終始

前場低迷

今朝는 晴天으로 阪地先限 三十一圓 丁이 三丁反落 寄付하고 當은 九圓 二十七錢이 二丁低이고 中限은 八圓 二十五錢인 五丁低로 先限은 二十八圓 三十錢인 三丁低고 寄付한後 阪地三節 九圓 九十五錢까지 下押하였다가 入保 關係의 四本同價 二十五錢 二本同價로 入節 三十七錢의 反高이다가 結局阪止 九十四錢에 當地도 三十錢으로 下押止揚하고 後場은 例休

一回豫想發表 空前의大豐作

朝鮮米第一回收穫豫想은 今日正午發表되엇는데 二千四百七十五萬二千四十二石으로 空前의大豐作이엇다 比前年實收五百三十四萬一千二百七十九石(二割七分五厘)의 增加이며 大豐이던 昭和五年의 實收高 新調査方式으로換算한것에 比하야도 六十一萬八千九百十四石(二分五厘)의 增加

朝取期米取組內容

	當	中	先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米 軟調裡에 保合

京城軟化

今日定期 期米안 十錢 硬에 正米도 어예伴하야 低調 唱하얏는데 取引은全然업다 ㊀三等三二、四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 三三、四〇

仁川ト押

第一回日本內地收穫豫想의 發表는 部分的發表이나 相當히 增加를顯示하고 엇

木浦閑散

期米는 小强을 示하얏스나 不賣의現狀으로 買氣全無로 依然 商談皆無의 閑散場面이다 ㊂新米 三等三一、〇〇 一等白米 三三、四五

群山不動

新規實物 激減에 持米側의 昭强은 告하얏스나 內地側의 買氣杜絶로 定期鉋崩으로 市勢도 釘付、狀態를 示하고잇다 四三等 三三、 一等白米 三四、〇〇 一三、五五

大邱不變

一般買俥候의 比際에 人氣不振이 一般人氣는 堅調化 하얏스나 休日관계로 取引고잇기 때문에 商談이 少로 依然하다 ㊁三等 三一、一〇 一等白米 三四、〇〇

釜山保合

古米減의 比際新米出迴이 더욱 濃厚하야 一般人氣는 堅調化하얏슨데 休日 關係로 見送하야 買方目前 豫想困難으로 傍觀하고 잇다 ㊂三等 三一、四〇 三一、一〇 ㊃ 三、〇〇 一等白米 三四、〇〇

一方 朝鮮內收穫豫想 二千五百萬石을 깨트리지안흘가하는 說이 擴頭되야 人氣漸次 逆이어서 市中閑散이나 人氣는 新米에 기우러저 古米의 實物이 多少 잇고 買方目前 豫想困難으로 傍觀

東京物價 (二日)

◆白米(正、單位錢) 一등 三五〇
◆麥類(一圓、單位錢)
二等 一升 赤飯 一〇〇
카메리야 수미 비ー나수 一六〇
◆肥料(一〇貫、單位錢)
硫安(各會社) 三、一五
過燐酸石灰(川崎) 二、四七
硫酸加里 二六 八四
豆粕(安東) 一、六〇
純固州手(四貫) 二、四五
改良馬糞紙(二) 一、〇五
◆紙物 (單位匁)
洋紙 [illegible]
아ー트紙 [illegible]
中質印刷紙 [illegible]
晒用紙 [illegible]
◆燃料(屯、單位錢)
撫順石炭 塊 [illegible]
同 中塊 [illegible]
同 二天 [illegible]
同 三天 [illegible]
마세크 [illegible]
京城 無煙炭 [illegible]
◆洋灰(五〇斤袋、單位錢) [illegible]
◆砂糖(百斤、單位錢) 小野田 [illegible]
◆物(單位錢)
白 [illegible]
黑 [illegible]
亞鉛引小波大尺(同) [illegible]
同 厚板二九番(同) [illegible]
丸釘 二吋(同) [illegible]
亞鉛引鐵線八番(丸) [illegible]
鐵線八番(一〇貫) [illegible]
◆食料品
丸 乾鰮五分(同) [illegible]
◆染料(斤、單位錢) [illegible]
◆木材(才、單位厘) [illegible]
杉材(同) [illegible]
◆毛絲(封度、單位錢) [illegible]
◆人絹(斤、單位錢) [illegible]
◆本絹(斤、單位錢) [illegible]
◆牛皮(乾百斤、單位錢) 京大皮 / 小皮 / 中皮 [illegible]

海外經濟 一日

◆銀行券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金價·銀

◆京城市中金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金 賣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紡織製品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鋼油粕·麥粉

◆阪神鋼粕 [illegible]
◆阪神鋼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長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朝 益 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期米 大 仁川海岸町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二丁目
電話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